

# 효정기동단 40일 개척 훈독교재

## 1 일차 훈독말씀

1957년에 통일교회에 처음으로 120곳에 전도를 내보내게 되었는데, 그때 돈을 갈 수 있는 차비만 가지고 옷도 두 벌만 가져가게 했습니다. 40일 동안 금식도 하는데 가서 미숫가루만 먹고 40일 동안 일하라고 한 것입니다. 그리고 노동하고 얻어먹는 데서부터 시작하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가서 그것을 극복하고 나왔습니다. 인간 최하의 자리에서 시작한 것입니다. 아버님은 3년 동안 생일날 금식을 했습니다. 식탁도 없이 음식을 바닥에 놓고 먹었습니다. 그리고 반찬은 김치, 간장을 비롯해 세 가지만 먹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올라왔습니다. 탕감복귀입니다. 입는 것도 얻어 입었습니다. (125-126, 1983.03.14)

아버님이 1950년대 통일교회를 출발하기 전에 많은 사람에게 훈련시키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금식을 하게 하고 개척전도를 시키면서 모든 분야의 훈련을 시켰습니다. 아버님이 보고파서 찾아왔다가 돌아갈 때 늦으면 데려다주고, 밤을 새워 왔다 갔다 하는 일들이 많았습니다. 그것은 아버님만이 아니고 우리 식구들도 그랬습니다. 그때 한국에는 자동차가 귀해서 전부 걸어 다녔습니다. 달밤, 새벽에 서로서로 눈물 흘리면서 나라를 위하고 하늘을 위하고 미래를 위해 선서하고 떠나던 그런 잊을 수 없는 사연들이 많습니다. 거기에서 애국심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첫사랑에 빠진 그 이상의 고차적인 영적 분위기에서 움직이던 것이 언제나 그립습니다. 그런 인연을 어떻게 유발하느냐 하는 것이 교회를 지도하는 사람들의 책임이고, 자기들의 활동 목표로 세워야 할 일입니다. 그 전통 기반을 어떻게 연결시키느냐 하는 것이 여러분이 노력해야 될 표준입니다. 아버님이 그렇게 이 기반을 일으켜 나온 전통을 존중시키고 전통과 교육과 행동을 생각하면서 자기 후계자들을 길러야 됩니다. 지금 아무리 잘했더라도 미래의 후계자들이 지금보다 못하면 떨어져 내려가는 것입니다. 지금보다도 미래가 더 잘되어야 합니다. 미래를 위해서 지금 투입해야 된다는 것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184-112, 1988.12.20)

통일교인들은 물리고 쫓기는 제일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눈이 내리는 동삼삭의 밤에 집에서 쫓겨난 가련한 신세의 식구들, 쫓겨나서 갈 곳이 없어 담벼락에 비벼대며 기도하던 그 사람들을 내가 압니다. 이런 한이 가슴에 어려 있지만 하늘의 참고 참는 그 마음을 내가 알았기 때문에 반대하는 가족들을 용서했습니다. 그들이 모르고 지은 죄니까 용서하는 것입니다. 사연이 많습니다. 그 가슴에 하늘땅의 한을 품고 다니는 것을 누가 압니까? 내가 그렇게 나오면서 눈물을 많이 삼켰습니다. (157-138, 1967.04.02.)

초창기에 전도 나갔던 책임자들은 핍박이 심하니 외롭기가 짝이 없었습니다. 서로 소식을 몰로 궁금하게 되면 중고등학생이나 대학생들을 통해 연락을 해서 만납니다. 그런데 그 거리가 대개 50리, 100리입니다. 아무 날 두 사람이 만나자고 해서 중간에서 만나게 됩니다. 50리 길이면 25리씩 걸어와서 만나는 것입니다. 만날 장소나 있습니까? 그러니 네거리나 지서 앞, 다리 밑 등 이름난 곳에서 만납니다. 그렇게 해서 만나면 먹을 것이 있습니까? 그렇게 오랜만에 만났으면 점심을 먹든가 저녁이라도 같이 먹어야 하는 것이 인지상정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할 수 없는 입장에서 헤어집니다. 그중에는 형님 같은 사람도 있고, 누나 같은 사람도 있고, 동생 같은 사람도 있습니다. 거기에서 교차되는 심정의 애달픔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과거에 자기 형제나 부모를 중심삼고 살면서 갖지 못했던 정열의 투입이 벌어집니다. ‘다음에 올 때에는 무엇을 해서라도 점심을 대접해야겠다. 닭을 사다가 대접해야겠구나!’라고 생각하고는 일주일 동안 노동을 해서라도 그것을 마련합니다. 그러면서 노동을 했다는 얘기는 안 합니다. 나중에 노동을 해서 그것을 사 왔다는 사실을 알게 될 때에는 피가 끓는 것입니다. 감격해서 눈물을 흘리게 되면 턱이 먼저 떨립니다. 그런 경지에서 다시 만나면 서로 불안고 기도하고 합성을 지르던 소리가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동네 사람들이 주변에 뺨 둘러서 있는 것도 모르고 기도하던 그때의 그런 일들이 모두 역사적 자료입니다. (215-043, 1991.02.06)

## 2 일차 혼독말씀

도대체 우주의 완성이 뭐냐? 우주를 완성하려면 내가 완성을 해야 됩니다. 아무리 우주가 완성되었다 하더라도 내가 완성 못하면 아무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좋더라도, 외적 세계가 좋아 춤을 춘다 하더라도 자기가 지금 고통에 사무쳐 있다면 그 모든 외적 세계의 기뻐하는 환경도 나와 관계가 없는 것임을 우리는 아는 것입니다. (166-210)

사무엘 울만의 <청춘>은 내가 좋아하는 시 중 하나입니다. "청춘이란 인생의 어떤 한 시기가 아니라 마음가짐을 뜻하나니"라는 시구를 그중 좋아합니다. 청춘을 꼭 젊은 시절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가슴 뛰는 마음만 있으면 나이를 떠나 누구든 청춘처럼 푸르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1984년 세계대학원리연구회 회장을 맡은 문효진은 1987년 제4회 총회를 서독 베를린에서 열었습니다. 행사장 밖에서는 공산주의자 수백 명이 모여 온갖 소란을 피우며 반대 시위를 벌였습니다.

총회가 끝날 때 효진이는 용감하게 선언했습니다. "이제 베를린장벽을 향해 행진을 시작합니다!" 반대자들의 위협과 방해를 뚫고 행진 두 시간 만에 베를린장벽에 도착했습니다. 그곳까지 따라온 공산주의자들과의 몸싸움 끝에 그들을 전부 행사장 밖으로 밀어냈습니다. 효진이는 눈물 어린 연설로 청중들을 감동시켰습니다. 2천여 명의 청년들이 베를린장벽을 붙잡고 간곡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뜨거운 목소리로 <우리의 소원은 통일>을 함께 불렀습니다. 그 기도와 노래가 씨앗이 되어 몇 년 후 베를린장벽은 무너졌습니다.

그날 효진이가 청년들과 함께 불렀던 노래는 세계 역사를 급격히 바꾸는 시발점이 되었습니다.

청년의 열정은 국경을 초월하고 장벽도 무너뜨립니다. 그러나 오늘날의 일부 청년들은 도전정신이 퇴색된 것처럼 보입니다. 도전정신을 지닌 사람이야말로 참된 청년입니다.

오래전 우리의 지혜로운 조상들은 화랑도와 국선도를 만들어 청년들을 수련의 장으로 보내서 몸과 마음을 닦게 했습니다. 그런 전통을 옛 시대의 유물이라 하여 등한시할 것이 아니라 새롭게 되살려 참된 가치를 찾고 마음을 올바르게 정화시키는 수련의 도장으로 삼아야 합니다.

우리 부부는 청년들이 현실의 암울함에 매몰되어 꿈을 포기하거나 목표없이 방황하는 모습에 매우 가슴이 아팠습니다. 또한 올바른 목표를 가지고 있어도 혼자 힘으로 이루기 벅차하는 모습을 보고 그들을 도와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그래서 세계 청년들을 하나로 묶는 세계평화청년연합을 만들었습니다.

1994년 미국 워싱턴DC에서 '애천, 애인, 애국'의 마음으로 참가정을 실현하고 올바른 가치관을 세우기 위해 혈기왕성한 청년들이 모였습니다. 워싱턴에서 막을 올린 뒤 세계로 뻗어 나가 1년도 안 되어 160개 나라에 지부가 만들어졌습니다. 짧은 기간에 그토록 발전한 것은 청년들의 열망이 얼마나 뜨거웠는지 잘 보여 주는 증표였습니다.

그동안 청년연합은 국제교류, 윤리 도덕의 확립과 참가정 실현에 힘을 쏟아왔습니다. 또한 남북통일을 이루기 위해 누구보다 앞장서 왔습니다. 유엔이 저마다 자국의 권익만을 앞세워 지구촌 분쟁을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는 현실에서, 참된 비전을 제시하는 '참부모유엔'을 만들고 세계 곳곳에서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몸과 마음을 닦는 것은 일생에 걸쳐 해야 할 일이지만, 특히 청년기에 그 중요성은 참으로 큼니다. 갈림길에 섰을 때 단지 이기적인 욕망의 길로 들어설 것인지, 선한 꿈을 향해 나아갈 것인지 결정되는 시기가 청년기입니다. 제2의 인생이 펼쳐지는 그 시기에 찬란한 용기와 꿈을 지닌 '아름다운 청춘'이 되어야 합니다. <인류의 눈물을 닦아주는 평화의 어머니 中 청년의 열정은 꺼지지 않는 햇불>

## 3 일차 혼독말씀

지혜로운 사람은 어려운 길을 통해서 미래의 희망을 품고 가기를 결정한 사람이고, 어리석은 사람은 지금 당장의 행복을 위해서 미래를 꿈같이 버리는 사람이다. (105-180)

사탄은 우리의 참부모를 유린했고, 우리의 참다운 가정, 참다운 형제를 유린했고, 참다운 종족, 민족, 국가, 세계를 유린했습니다. 나아가서 지금까지 하나님을 고난과 역경으로 몰아넣은 장본인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자나 깨나 생명이 끊어질 때까지 천주사적인 원한을 남긴 이 원수를 격퇴시키고, 하나님이 바리시던 평화의 세계, 사랑의 세계, 행복의 세계를 하나님 앞에 이루어 드려야 합니다. 이것이 자녀된 우리의 책임인 것을 알기에 이를 위해 꺾기해야 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참다운 부모를 모시고, 참다운 형제로서 참다운 본향을 찾지 않으면 안 됩니다. 우리들이 참다운 본향, 참다운 땅을 찾아 참다운 조국을 건설하고, 참다운 조국을 중심으로 참다운 세계를 이루고, 참다운 세계를 중심으로 참다운 천주를 이루어 놓지 않으면, 하나님이 창조 당시 인간 시조 앞에 부여하셨던 창조의 목적과 소망을 달성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떠한 희생이 있더라도 이것을 성취해 놓지 않으면 안 될 중대한 책임과 사명이 있음을 알아야 하겠습니까.

따라서 이제 여러분은 개척전도, 혹은 다른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은 지칠 자리에서 지치지 말고, 낙심할 자리에서 낙심하지 말고, 후퇴할 자리에서 후퇴하지 말고 전진하고 또 전진해야 합니다. 용맹과 담력을 가지고 적진을 향하여 돌격해 나가, 천지를 대표한 하늘의 용사로서 기백을 잃지 말고 끝까지 싸워야 합니다. 그리하여 승리의 세계를 이루고 천주를 복귀하여, 이 한 많은 역사를 청산짓고 희망과 행복이 넘치는 최초의 창조 이상세계를

이룩해야 하겠습니까. 이를 위하여 모든 것을 바쳐 싸워 주기를 부탁하는 바입니다. <말씀선집13권>

한국에서 개척지에 나가 전도하던 그때는 하루 벌어서 하루 살기가 힘들었습니다. 하루 벌어서 한 끼 먹고살기가 힘든 때였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길을 가다가 헛다리를 짚는 일이 얼마든지 있었습니다. 우리 전도사들이 어떤 동네에 개척을 나갔는데, 먹을 것이 없을 때 그 동네에서 일하겠다고 하면 소문이 나고 핍박이 더할 수 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100리 길 이상을 가서 일을 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 전도사들이 본부에서 돈을 가지고 가서 전도한 것이 아니라 그런 사정 가운데서 개척전도를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자기 사정을 식구들에게 절대 얘기 안 했습니다. 그러니 식구들은 알 수가 없습니다. 6개월이 지나고 1년이 지나고 나서 알고는 붙들고 통곡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도자에게 도시락을 갖다 먹이는 운동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니 그 밥을 먹어야 할 지도자의 마음이 얼마나 비참합니까? 또 밥을 굶을 것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가운데서 서로서로 그것을 극복하면서 ‘우리는 죽더라도 뜻을 이루자.’라며 심정적 유대감에 젖어 있었습니다. (094-229, 1977.10.01)

축복가정 2세들을 단단히 훈련시켜야 됩니다. 2세 여러분도 개척전도를 나가야 됩니다. 큰 나무가 되려면 뿌리를 깊은 데 박아야 됩니다. 뿌리를 깊이 내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산꼭대기에 심은 나무는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마르게 마련입니다. 골짜기 깊은 데에 뿌리를 내려야 거름도 많고 보호도 받을 수 있습니다. 위에 있으면 바람이 불고 춥습니다. 바람이 불면 넘어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깊은 골짜기에 뿌리를 내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만사 좋은 것이 전부 높은 데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좋은 것은 높은 데에도 있지만 제일 낮은 데에도 있습니다. 나무로 말하면 제일 귀한 것이 뿌리입니다. 뿌리는 보이지 않게끔 밑창에 박습니다. 뿌리는 종대뿌리에서부터 직선으로 자라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대뿌리를 중심삼고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그것의 사방으로 잔뿌리를 쳐야 됩니다. 그것에 비례해서 나무 자체에 달려 있는 줄기와 가지도 크는 것입니다. 뿌리가 먼저입니다. 씨를 보더라도 뿌리가 트면서 싹이 나오는 것입니다. 하늘과 인간의 관계를 보게 되면 거꾸로입니다. 인간의 뿌리는 하늘입니다. (206-011, 1990.10.03.)

우리 통일교회에서는 7월 20일이 되게 되면 40일 전도기간을 갖게 되어 있는 것을 여러분은 모르지요? 이제부터라도 통일교회 역사를 알아야 됩니다. 역사를 모르면 현재를 알 수 없는 것입니다. 또, 현재를 모르면 미래를 알 수 없습니다.(167-206)

## 4 일차 혼독말씀

피곤한 몸으로 잠자리에 들게 될 때, 누구를 사랑하기 위해서 피곤하게 되었느냐가 중요하다. 자기를 위해서 그랬다면 부끄러움이요, 세계를 사랑하려고 그랬다면 영광이다. (59-58)

### 신앙의 비결

뜻길이라는 것이 뭐예요? 여러분에게 뜻길이 필요해요? 뜻길이라는 것은 여러분의 뜻이 아닙니다. 선생님의 뜻도 아니고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이 세운 것입니다. 하나님이 본래 창조이상으로 세웠던 그 뜻은 절대적인 것입니다. 거기에는 두 마음의 흔적이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일편단심입니다, 일편단심. 마음이 언제나 붉은, 붉게 타오르는 마음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끊겨도 안 됩니다. (210-48)

누구든지 영계를 알게 되면 신앙생활을 철저히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놀 시간이 없고, 잠잘 시간이 없고, 밥 먹을 시간도 없다구요. 머뭇거릴 시간이 없습니다. 언제 죽을지 모른다구요. 그렇지요? ‘아, 오늘 좋은 일이 있겠지?’ 하면서 아침에 집에서 나서다가 자동차에 치여서 영계로 날아가 버릴지도 모른다구요. 자기 자신의 생애를 보장해 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것을 보장받을 수 있는 이상의 귀한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323-60)

### 나는 무엇을 남길 것이냐

여러분, 여기에서 문제 되는 것이 뭐냐 하면, 여러분이 이제 레버런 문이 보내서 지역 책임자로 왔다 하면 레버런 문하고 여러분을 비교한다는 것입니다. 선생님이 여기에 와 가지고 모든 일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은 뭘 하나 붙들면 끝까지 뿌리를 뽑고, ‘내 것이다.’ 할 수 있는 자리가 될 때까지 손을 놓아서 안 됩니다. 계속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 나로 말미암아 무엇을 남길 것이냐, 무엇을 재창조할 것이냐 하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힘들다고 후퇴하겠다는 사람은 안 되는 것입니다. 처음 출발, 시작을 잘 해야 됩니다. 내려가면 안 됩니다. 어떤 일이 있든지 올라가야 됩니다. 좋은 일은 어려운 일이라구요. 제일 어려운 일이라구요. 제일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제일 가치 있는 것입니다.

일생 동안 목사가 돼 가지고 가진 것 없고 세상에 아무것도 없지만, 죽게 될 때는 묻히는 그 동산이 사람으로 덮일 수 있는 이런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 지방에 가 가지고 전도하다가 그 지방 동산에 묻히면 그 동산 전체가 자기 무덤을 방문하고, 사시사철 그 무덤에 꽃이 시들지 않는 이런 사람이 되어야만 그 사람의 본을 받아 가지고 그 나라와 백성, 인류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알겠어요? 「예.」 (277-100~117)

통일교회가 역사에 없어지지 않는 한 말씀은 주류사상으로 언제든지 꼭대기에 남을 것이다. 여러분은 그대로 실천 못 하더라도, 수많은 나라들이 경쟁해서 실천할 수 있는 때가 온다. 처음 된자가 나중되어 뒤집어지는 것이다. 때를 잃어버린 사람은 역사에 남지 못한다 (390-314)

## 5 일차 훈독말씀

깊은 숲속의 작은 오솔길이 있습니다. 사람 한 명이 겨우 지나갈 수 있는 길입니다. 처음에 이 길을 낸 사람은 손으로 나뭇가지를 쳐내면서 손에 생채기가 나는 것을 아랑곳하지 않고 땀을 송골송골 흘리면서 길을 만들었을 것입니다. 그 덕분에 뒷사람들은 편하게 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 첫 사람의 노고에 깊이 고마워하면서 길을 더 넓고 평탄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그러나 숲에 오솔길을 내는 것보다 사람들 사이에 길을 만드는 것이 더 어렵습니다. 사람들은 나무나 가시덤불과 달리 자신의 의지가 있습니다. 그 의지에 반하면 마음을 열려 하지 않습니다. 나는 평생 사람들의 마음을 열어 한 가족이 되도록 하는 데 땀과 눈물을 흘렸습니다. 누구도 가지 않는 길을 개척하고 가장 험한 곳에서 세계인을 품에 안았습니다. 누구라도 도망치고 싶은 처지에서 인류 구원과 세계평화를 위해 묵묵히 참사랑을 실천해 왔습니다. 나를 비난한 원수까지도 용서하고 품어 감동의 눈물을 흘리게 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섭리의 봄을 맞이했습니다. 한 해를 시작하는 봄은 결실을 거둬야 하는 농부에게는 가장 바쁜 계절입니다. 미래의 풍성한 수확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섭리의 봄을 맞은 천일국의 백성들은 본래 하나님께서 이루려 하셨던 그 본연의 세계를 건설하기 위해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자신의 종족을 책임지고 국가적인 기반에서 메시아의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그런 천명이 놓여 있습니다.

어렵고 힘들어도 섭리를 마감하고 진실을 드러내야 합니다. 해바라기처럼 정렬된 자세로 우리에게 주어진 책임을 다한다면 하나님의 꿈, 인류의 소원은 반드시 이루어 집니다. 문제는 내가 지상에 있는 동안 그 결과를 하나님 앞에 봉헌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후대

후손들에게, 미래에 올 인류 앞에 자랑스러운 나 자신이 됩니다. 이런 때는 언제나 오는 것이 아닙니다. 한 인간을 놓고도 독생녀인 나와 함께하는 이 시간은 그 누구든 나이를 막론하고 황금기입니다. 황금기를 놓쳐서는 안 됩니다.

동시대에 살면서 참부모가 오셨는지도 모르고, 하늘의 축복과 은사가 있는지도 모른 채 살아가게 할 수는 없습니다. 세상 만민이 이 시대에 함께 사는 것을 감사하면서 하늘을 모시는 자리에서 살게 해야 합니다. 지상천국에서 살아야 천산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목표도, 우리의 갈 길도 하나입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 자랑스러운 아들딸로 나아가는 길입니다. 하나님께서 "수고했다". 내 딸아, 내 아들아!" 하고 품어 주실 수 있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지상생활을 하고 있는 바로 이때가 황금기라는 사실을 가슴으로 깨달아야 합니다.

나의 생활철학은 '위하는' 것입니다. 어디를 가든 다른 사람을 '위하는 삶'을 실천하기 위해 갑니다. 자기 부모의 사랑보다도, 형제의 우애보다도 더 사랑을 주기 위해 가시밭길을 걸어왔습니다. 사람은 좋은 것이 있으면 자기가 갖고, 다른 사람에게는 덜 좋은 것을 줍니다. 심지어 부모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면 그것은 욕망의 굴레에 갇히는 것이요, 다른 사람을 앞세우고 위하는 삶은 영원한 축복과 자유를 얻는 지름길입니다.

나는 곤궁에 처한 사람을 보면 내가 가진 모든 것을 주었습니다. 나는 결혼반지조차 없습니다. 좋은 것을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있는 세계는 기쁨의 세계가 됩니다. 이것이 나의 생활철학입니다. 자기만을 위하는 사람은 곧 벽에 부딪힙니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을 위해 베푸는 마음과 사랑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인류의 눈물을 닦아주는 평화의 어머니 中 섭리의 봄, 나와 함께할 때가 황금기>

## 6 일차 혼독말씀

새로운 신념을 가지고, 사탄세계가 아무리 반대하고 핍박하더라도 굴복하지 않고 극복할 수 있는 사람이라야 하나님이 자랑할 수 있고 축복해 주실 수 있다. (54-54)

이 모순된 환경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여러분이 처한 타락권 내의 환경은 모순된 환경입니다. 모순된 환경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그 모순된 환경을 타개해야 합니다. 그 환경에 돌입하라는 진격 명령을 받을 수 있는 돌격대의 사명과 개척자의 사명을 해야 합니다. 그런 명령을 받아 움직여야 할 우리들의 인생 행로라는 것을 여러분이 알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고로 인간들은 자기를 위주로 하는 생활에서 떠나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현의 도리는 자기 개인의 생활과 부모와 처자를 위한 생활이 아닙니다. 거기에서 떠나서 사는 생활, 자기의 민족을 위해 사는 생활에서 떠나 사는 생활, 자기의 종족을 위해 사는 생활에서 떠나 사는 생활, 자기의 국가를 위해 사는 생활에서 떠나 사는 생활, 더 나아가서는 타락된 이 세계를 떠나 사는 생활인 것입니다. 그러면 떠나서는 어디에 가서 살 것이냐? 떠나 가지고는 살 곳이 없습니다. 이 세계 외에는 살 곳이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방법이 있다면 선한 세계를 이루어 선한 세계의 주인과 같이 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하나님을 부르고 참을 고대한다는 것을 여러분이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겠습니다. 그러려면 이 세상과 타협하고 거래해

가지고는 안 됩니다. 세상의 경계선을 돌파해 가지고 넘어선 경지에서부터 그 인연이 맺어지는 것입니다. (31-308)

통일교회가 뭘 하는 곳이냐고 묻는다면 첫째는 참사랑을 소개하는 곳이요, 둘째는 참사랑을 중심삼고 몸과 마음의 싸움을 그치게 하는 곳이며, 셋째는 몸과 마음이 하나된 남자와 여자를 이상적인 부부로 만들려고 하는 곳이다. (339-207)

“틀림없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딸이다.” 하는 심정으로 낮이나 밤이나, 사시사철, 혹은 연령을 넘어서 어떤 환경에 처하더라도 어떻게 실감하느냐 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69-177)



## 7 일차 훈독말씀

하늘은 신앙자를 고대하는 것이 아니라 생활 가운데서 실천하는 자를 고대하고 있다.(6-84)

준비를 못 하면서 큰소리하지 말라 이것입니다. 앞에 나서지 말라구요. 그런 사람이 내가 제일 싫어하는 사람입니다. 하늘은 새 것을 좋아해요. 문 총재는 하늘 앞에 서서 새 것, 더 새 것을 보여 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선생님의 철학이에요. 한국에 돌아왔기 때문에 오늘 처음으로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새 것으로 보여 줘라 이것입니다. 하나님도 그걸 보길 원하고 통일교회 자체도 그걸 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선생님도 그런 거예요. 구태를 써 가지고 여기 들어와서 출세 해먹겠다는 생각 없습니다. 그런 사람을 내가 제일 싫어한다구요.

껍데기를 벗고 새 출발하는 이런 각오를 가지고 선생님 말씀을 명심하고 준비되어 있느냐는 스스로가 잘 알 거라구요. 내일을 향해 가지고 자기가 새로울 수 있는 내 자신이 되어야 됩니다. 그건 자기들이 더 잘 아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고 이제부터 평면적인 면에서 자기들의 위신을 세울 때가 오는 거예요. 통일교회 사람들이 존경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전부 다 반 도적놈들같이 됐다구요, 이 놈의 자식들. 나 그거 원치 않아요. 깨끗이 다 정리합니다. 그러니까 충고겸 경고겸 선생님의 생활 철학의 일면을 전수해 주는 것입니다. 준비하지 않은 사람은 망한다구요. 어느 나라나 어느 가정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역사이래 기독교, 구약성경 신약성서가 전부 다 망해 떨어진 것을 내가 바로잡아 놓았다구요. 세상이 아무리 반대하더라도 이제 미국의 유명한 신학 박사들, 목사들이 자기 제자들을

데리고 와서 거꾸로 교육할 거라구요. 그때도 통일교회가 이단이에요? 보라구요. 예수님을 유대교의 메시아로 맞아들이라고 충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안 하면 이스라엘은 이 땅에서 흔적도 없어진다고요. 이 놈의 자식들, 네 멋대로 세상이 요리 안 된다 이거예요. 주위에 하늘이 있기 때문에 하늘의 프로그램대로 세상이 놀아난다는 걸 알아야 된다고요.

그와 마찬가지로 그런 세계까지 가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준비를 서둘러야 된다는 것입니다. 시집 장가가기 위해서는 준비를 해야 됩니다. 장가를 잘 가기 위해서는 준비를 해야 된다고요. 통일교회 미래의 지도자들은 준비를 해야 됩니다. 어디든지 마찬가지입니다. 사업을 하더라도 그 직장에 있어서 그 누구보다도 준비하고 밤을 지새우고 노력하는 사람이 제2의 후계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건 천리입니다. 틀림없는 것입니다.



## 8 일차 혼독말씀

여러분, ‘통일교회가 주장하는 내용이 뭐냐?’ 하고 누가 물어보면 뭐라고 해요? 그때는 ‘이 세계를 구하는 것이다.’ 이래야 됩니다. 그러면 세계를 구하는 데 있어서 무엇으로 구할 것이냐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것은 돈으로 구하는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구하는 것도 아닙니다. 세계를 구하는 데는 사상을 가지고 구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통일교회가 오늘날 두익사상이나 하나님주의와 같은 사상을 내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227-9)

통일교회는 뭐냐? 참부모를 신앙하자, 참부모를 믿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믿는 것은 확실하지 않은 거예요. 확실하지 않으니까 믿는 거라구요. 확실하면 믿는 자리를 넘어가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확실히 몰랐기 때문에 믿었지만, 확실히 알고 나면 믿는 것이 아닙니다. 아는 것을 나와 더불어 하나 만들 수 있는 생활을 거쳐가야 된다는 이런 논리가 성립돼요. 인간이 믿을 수 있는 내 자신을 발견하고, 그 다음에는 상대를 발견하고, 그 다음에는 아들딸을 발견하고, 가정을 발견하는 거예요. 결론은 마찬가지로요.

지금까지는 내가 왜 태어났는지, 우리 부부가 뭔지, 자녀가 뭔지, 가정이 뭔지를 몰랐다고요. 그러나 우리는 참부모의 가정을 믿는 것이 아니고, 참부모님의 가정을 아는 거예요. 여러분은 참부모를 안다고요. 믿는 것이 아니에요. 참부모를 믿는다고 생각하지 말라고요. 안다고 생각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는 뭐냐? 참부모와 생활을 해야 돼요. 알았으니까 살아야 된다고요. 참부모와 같이 살아야 됩니다.

하늘땅이 완성을 하고, 하나님의 이상이 완성되고, 하나님의 사랑이 완성되는 모든 전체가 그 가운데 들어가 있다구요. 그렇기 때문에 같이 살아야 된다고요. 그래, 참부모가 필요해요? 「예.» 왜? 타락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에게 쫓겨나서 거짓 부모가 생겨나 가지고 역사가 지금까지 되었기 때문에 이것이

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구원섭리는 돌아가는 것입니다. 복귀해서 어디로 가느냐 하면 본래의 참부모의 자리에 돌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참부모를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고, 이 우주를 알고, 사랑의 세계를 알고, 그 모든 것을 안다는 거예요. 사탄세계는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몰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재림주가 옴으로 말미암아, 참부모가 옴으로 말미암아 이런 모든 것을 알게 되었다는 사실은 놀라운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고, 우주가 어떤지 안다구요. 통일교회는 다 알고 있다구요. 더 이상 가르쳐 줄 것이 없습니다. (287-141)

여기 문 총재라는 사람이 가르쳐주는 제일 골자 내용이 뭐냐? 골자 내용이 뭐예요? 아까 원리말씀을 해주면 좋겠다는 사람! 「원리말씀에 있어서 말입니까?」 원리말씀에 있어서 신에 대한 골자 내용을 한마디로 하면 뭐예요? 「하나님의 심정입니다」 하나님의 심정을 가르칩니다, 심정. 하나님의 심정을 밝히는 도리가 원리의 길입니다.

그런데 통일교회에서 가르치는 그 골자 내용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심정이다 이겁니다. 하나님도 안 보이고, 하나님 속에 있는 심정도 안 보이지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심정을 어떻게 가르쳐주느냐? 이거 문제가 큼니다. 여러분도 꿀을 먹어 봤지요, 꿀? 꿀 먹어 봤지요? 「예.» 꿀을 먹어 본 사람이 맛을 설명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아침 저녁 마음대로 퍼먹을 수 있는 꿀, 맛있다고 쪽쪽 빨아먹지만 그거 설명할 수 있던가요, 없던가요? 「없습니다.» 설명하려면 얼마나 어려워요! 그 맛을 본 사람에게 설명하면 뭘해요? 밤이나 낮이나 다 아는데 말이에요.

그렇지만 그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는 설명을 하고 설명해서 안 듣게 되면 말이에요, 가르쳐 준 내용을 합해서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꿀이 돼 있느니라!’ 하며 꿀을 먹여 줘야 ‘응, 응, 알았어. 알았어!’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통일교회에서 말하는 하나님, 문 총재가 하나님의 심정을 가르쳐주는데 그 하나님의 심정을 문 총재는 알 수 있을지 모르지만, 통일교회를 따라오는, 문 총재를 따라오는 사람들은 그것을 알 수 없습니다. 알 수 없어요. 그러면 알 수 없는 것을 어떻게 가르쳐주느냐? 통일교회에 들어와 가지고 신앙생활을 함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이렇게 가면 그것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없다, 있다 할 수 있는 것입니다. (177-237)

## 9 일차 훈독말씀

마음은 일생 동안 투입하고 잊어버리고, 또 투입하고 잊어버리는 하나님의 자리에 있다. 얼마나 마음이 몸에게 유린당하고 있는가를 알아야 한다. 그러니까 마음은 하나님의 자리에 있는 것이다. 그 마음이 하자는 대로 하게 되면 망하지 않는다. (211-112)

못 세상 사람들은 통일교회가 돈이 많다고 지레짐작합니다. 문선명 총재와 한학자 총재 역시 돈이 많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두 사람은 평생 자신의 이름으로 된 집 한 채 소유하지 않았습니다. 전부 세상을 위해 썼습니다. 우리 부부처럼 자신에게 철저한 구두쇠는 없을 것입니다. 비가 오는 날에는 선교사들이 낫선 땅에서 처마 끝을 바라보며 밤을 지새울 텐데 내가 어찌 맛있는 밥을 먹고 편히 잠을 잘 수 있겠습니까?

식구들의 헌금은 모두 학교를 세우는 등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쓰였습니다. 여러 기업체를 세운 것도 국가를 부강하게 하고 사람들의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였지, 그 돈을 소유하겠다는 생각은 애당초 없었습니다. 아무리 배가 고프더라도 나보다 더 배고픈 사람이 있으니 그를 위해 참고 또 참았습니다. 뜻길을 가면서 소유의 욕심을 지닌 사람은 부모의 살을 에는 자요, 뼈를 깎아 먹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하늘 앞에 빗을 져서는 안 됩니다.

나는 늘 사랑을 생활의 중심에 두었습니다. 삶은 언제 끝날지 모르는 마라톤을 뛰는 것과 같습니다. 그 힘은 돈의 힘도 아니며, 명예나 권력의 힘도 아닙니다. 위대한 사랑의 힘입니다. 사랑은 아기가 울 때 어머니가 젖을 내주는 것과 같습니다. 그것이 가장 위대한 사랑입니다. 사랑과 더불어 내가 왜 왔으며, 왜 살아야 하며, 어디로 가야 하는가를 늘 마음속에 담고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심정을 더듬어 볼 때 내가 당하는 시련과 고통은 오히려 너무나 가볍다고 여길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를 변명하기에는 너무나 부족합니다. 어려움이 닥치면 닥칠수록 절대신앙 · 절대사랑 · 절대복종해야 합니다. 태어난 것을 나 스스로 태어났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주어진 삶을 충실히, 아름답게, 가치 있게 살아야 합니다. 내가 자녀와 가족을 위해서 있고, 아내나 남편을 위해서 있고, 전 인류를 위해서 있다는 마음만이 행복한 나를 갖게 해줍니다.

우리의 제일 가까운 스승은 자신의 마음입니다. 어려운 일에 처하거나 혼란스러운 일이 다가오면 마음한테 물어보면 됩니다. 그 마음에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내재해 계십니다. 그 진정한 소리를 들을 줄 알아야 합니다. 마음 가운데 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알아야 합니다. 자신을 갈고닦아 마음이 속삭이는 소리, 하나님이 들려주는 소리를 들을 줄 아는 자리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마음은 영원한 나의 주인입니다. 마음의 기도는 하나님과의 유일한 통로입니다. 그와 같은 참된 기도를 통해 가장 곤궁하고 가장 험난한 곳에서도 하나님과 참부모님의 은총을 허락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 은총의 손길에 따라 하늘나라로 자유로이, 그리고 행복하게 올라갈 수 있습니다.

<인류의 눈물을 닦아주는 평화의 어머니 中 섭리의 봄, 나와 함께할 때가 황금기>

## 10 일차 훈독말씀

사랑의 심정으로 달려가게 하시옵소서

사랑하는 아버님, 뜻이 원하는 길이 이렇게 곡절의 고개가 많은 험산준령인 것을 미처 몰랐습니다. 여기에 서 있는 아들은 묵묵히 이 길을 향하여 생애를 걸고 겨누면서 출발하여 소년시절을 거치고 장년시대를 거치며 복잡한 환경의 과정과 교회를 붙들고 몸부림치던 시대를 나라와 민족이 핍박하는 와중에서 비틀거리며 걸어올 적마다 당신이 붙들어 주셔서 쓰러지지 않고 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지켜 주신 과거를 돌아볼 때 감사합니다.

지금은 민주세계 첨단의 자리, 온 시선이 주목하는 천의에 맞는 하나님 아들의 자리에서 본이 되는 아들의 모습을 증거하기 위해 모든 것을 개의치 않고 나아가는데 아버지께서 지켜 주시고 이끌어 주심을 감사하옵니다. 망하는 줄 알았지만 망하지 않고 살아남은 길이 몇 번이었던 사실을 생각할 적마다 진정으로 타락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알았으니 저희 일대에 있어서 다시는 타락의 한스러운 길을 아니 가겠다는 철석같은 신념으로 맹세를 하고 남음이 있을 수 있는 통일교회 가정의 무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제 어디서 병이 났는가를 알았고, 철석같은 신념을 가지고 하늘을 누구보다도 더 사랑해야 할 책임이 저희에게 있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제 모든 타락성 근성이 어떻다는 것을 알았사옵니다. 먼저 자기를 중심삼은 소유욕으로 출발했고, 거짓말을 했고, 부조리한 정조의 길을 갔고, 모든 하늘의 것을 빼앗는 강탈의 길을 갔고, 그다음에 아들시대에 와서는 죽이는 길을 갔습니다.

역사시대의 모든 독재자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느냐 하면 거짓말을 한 자요, 불륜적인 사랑의 길을 마음대로 행한 자요, 모든 것을 자기 마음대로 강탈한 자요, 모든 선한 사람을 마음대로 죽인 자들이었음을 생각할 때 그와 같은 역사적인 오점의 길을 저희는 가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이것을 사랑으로 소화시키는 하늘의 전통을 고이 이어받아 자기 스스로 만세의 어떤 역사적인 싸움보다도 더 비참하고 치열한 싸움을 하더라도 패자가 되지 않고 승자가 되어 하늘의 사랑의 깃발을 높이겠다고 몸부림치는 아들딸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제 마음과 몸을 다 바칠 것을 아버지 앞에 결의했사오니 사랑의 심정으로 불타는 마음을 가지고 하늘을 위해 미치는 길을 달려가기에 주저하지 않는 무리가 되게 허락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니다. 돌이켜 생각하면, 역사 가운데는 한도 많았고 슬픈 일들도 많았지만 당신의 사랑을 위해 가는 위로의 길이 있었던 것을 감사하옵니다. 회고하는 역사를 감사로, 스스로 비판하는 현재의 입장을 감사로, 미래에 나타날 승리의 한 날이 눈앞에 다가오는 것을 감사로 맞이하게 하소서. 감사로 시작하여 감사의 과정을 거쳐서 감사의 종착점에서 감사의 눈물과 더불어 서로서로 손을 붙들고 자기 아내와 아들딸과 모든 것을 하늘 앞에 바치고 승리하는 가정으로 아버지 앞에 입적해 들어갈 수 있는 하늘의 거룩한 무리가 되게 허락해 주시옵고 황족들이 되게 허락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부탁하고 원합니다.

남겨진 사연이 많더라도 오로지 사랑을 중심삼은 승리의 한 날을 위한 목적을 중심삼고 모든 것을 소화시키고 달려가는 담대하고도 용맹스러운 아들딸들이 되게 허락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황혼에 땅거미가 지는 길을 가는 한이 있더라도 사랑의 눈물자국을 남기는 걸음을 걸겠다고 하는 무리가 된다면, 그들이 가는 길은 망하지 않고 환영받는 길만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사오니 모든 가정을 대표하는 무리가 일치단결해 한 덩어리가 되어서, 한 몸이 되어서 이 나라를 살리고 세계를 향해 넘어가는 사랑을 중심삼은 가정의 무리가 되고, 종족과 교회의 무리가 되고, 축복받은 선민의 특권을 이어받을 수 있는 무리가 되게 허락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부탁드리고 원합니다.

남아진 그날들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남편과 아내가 되고, 부모가 되고, 종족과 민족의 책임자들이 되게 허락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부탁드리면서, 참부모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주!  
(1982.10.27)

## 11 일차 혼독말씀

모든 문제는 자신에게 있다. 다른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자신의 문제가 해결되어야만 다른 사람을 도와 줄 수 있다. (122-196)

낮은 자리에서 나가는 것입니다. 높은 분이 낮은 자리에 가게 되면 그 동네에서 올려 주려고 한다구요. 알겠어요? 레버런 문이 유명하다 하면, 그런 유명한 분이 여기 왔다 하게 된다면 어떻게 대하느냐? 내가 높은 자리에 서려고 하지 않고 낮은 자리에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이 주변 사람들은 올려 주려고 한다구요.

자기가 올라간다고, 대우받는다고 해서 그것을 좋아할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나와 같이 당신들을 만들어 줄 것이다.’ 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언제나 위하고, 언제나 협조하려고 합니다. 그래, 환경적 여건은 내 마음의 반응체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기준 앞에 반드시 상대적 기준, 참이면 참의 상대가 나타나야 되고, 내가 나쁘면 나쁨의 상대가 나타나서 빨리 망하는 것입니다. 참의 상대를 중심삼고 움직이면 그건 전부 다 발전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양 갈래로 갈라질 수 있는 분수령의 책임을 여러분이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일교회의 책임자로 왔다 하게 된다면 가나 오나 전부 측정하는 것입니다.

더더욱이나, 반대하는 사람은 조건을 잡아서 쫓아내기 위해서 가나 오나 따라다니면서 체크한다는 것입니다. 사탄이 따라다니는 데서 사탄의 참소를 받지 않는 길은 뭐냐? 하늘이 사탄을 물리치고 나를 협조할 수 있기 위해서는 내가 사탄세계가 못 한 것을 해야 됩니다. 못하는 것을 하려니까 그 동네의 모든 나쁜 것은 내가 다 책임져야 되는 것입니다. 알겠어요, 무슨 말인지?

여러분은 뿌리로 말하면 중심 뿌리입니다. 거기에 그 동네면 동네, 하나님이 뿌리 중의 뿌리인데, 하나님과 연결될 수 있는 무엇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이 뿌리가 돼 가지고 연결시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기를 위하는 생활을 해 가지고는 안 되는 것입니다. 전체를 위해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 12 일차 훈독말씀

전도는 말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다. 사랑의 심정이 넘쳐흐르면, 거기에 꽃이 피는 것이다.  
(163-284)

여러분이 알아야 할 것은 뭐냐? 여러분은 여러분을 길러 준 어머니 아버지를 안다구요. 또 형제들을 안다구요. 그러면 식구를 기르는 데 있어서, 전도하는 데 있어서 자기가 전도할 사람이 어머니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형제들의 사랑을 받는 그 이상 사랑해야 됩니다. 그런 자리에 올라가지 않고는 복귀가 안 됩니다. 사람을 참 좋아해야 되고, 자기 아들딸보다도, 자기 형제보다도 더 좋아할 수 있는 자리에 서지 않고는 하늘이 움직여 주지 않습니다.

아무나 오면 그 세계에 가서 동기를 누가 만드느냐 하면, 여러분이 만들어야 됩니다, 동기를. 내가 하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마음을 평면적인 면에 있어서 모든 사람들을 사랑해 가지고, 그 사람들이 내가 하늘을 흠모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 땅 위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흠모할 수 있게끔 정성을 들여야 됩니다. 정성을 들여야 된다 이겁니다. 정성들이는 것은 말씀을 해 주는 것입니다. 말씀을 해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말씀을.

그러면 자연히 마음 기준이 맞춰져서 인연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 가지고 점점점점 서로 알게 되면, 그 다음에는 그 식구 될 사람이 안 찾아올 수 없습니다. 찾아오는 것입니다. 찾아오게 되면 세상 그 누구보다도 반갑게 대해 주는 것입니다.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보다도, 자기 사랑하는 부모보다 반가운 마음이 싹터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부모의 자리에서 찾아오는 사람을 사랑해 줘야 됩니다. 하늘같이 사랑해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자리에서 그렇게 인연이 되면 점점 점점 하늘의 정이 깊어 가는 것입니다. 정이 깊어 가는데 세상의 남자 여자가 연애할 때 그리워하는 이상의 자리까지 올라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남자 여자가 서로 사랑하고 그리워하는 이상의 자리까지 회복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천번 만번 생각을 하고, 그를 위해 기도해 주고 정성들여야 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따라 올라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게 되면, 말씀에는 재창조할 수 있는 힘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듣고 감동 받게 되면... 말씀을 감동 받을 수 있게 해 줘야 됩니다, 내가 감동 받고 말이에요. 내가 말씀과 더불어 살면서 얘기해야지 들은 말씀, 자기와 상관없는 말씀을 해 가지고는 감동 받지 않습니다.

피살이 동하는 그런 말씀을 전해야 됩니다. 그런 말씀만 들으면 그 마음에 들어가서 씨가 되어 가지고 잊어버리질 않습니다. 잊어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지금까지 살던 습관성이 있고, 돈을 그리워하고, 친구를 좋아하고, 놀기를 좋아한다면, 좋아하는 그 환경 이상의, 내가 매력적인 힘을 가지고 끌어당길 수 있는 것이 없어 가지고는 그 환경을 극복해 나올 수 없다는 걸 알아야 한다구요.

## 13 일차 훈독말씀

백 마디 천 마디의 말보다 심정적 유대를 가지고 골수에 침투할 수 있는 사랑의 심정이 나에게서 어떻게 흘러넘치느냐 하는 것이 문제이다.(69-179)

하나님은 복귀의 길을 더듬어서 개인 과 가정을 찾아오셨지만 그 개인과 가정으로 부터 배척을 당하셨습니다. 그런 하나님이 또다시 세계를 향하여 가는 그 걸음을 멈추지 않으니, 나도 가야 되겠습니다. 그 길이 험준하다고, 그 길에 죽음이 있다고, 슬픈 곡절이 있다고 마다해서는 안 됩니다. 나의 아버지가 가신 길을 나도 가야 되겠으니, 아버지가 어려우면 나도 어렵기를 바라고, 아버지가 슬프면 나도 슬프기를 바라야 합니다. 이것이 통일의 이념입니다. 이 뜻이 정녕 아버지께서 세우신 뜻을 알게 될 때는 아무리 어려운 일이라도 극복해야 됩니다. 또한 아무리 어려운 사정이 있다 하더라도 그분은 내 아버지요 그 사정은 내 사정이 되기 때문에, 그 아버지가 세우신 전통을 상속받고 그 아버지의 역사와 심정에 접붙임을 받기 위해서는 그 아버지가 고통을 받으면 나도 고통을 받아야 합니다. 그것은 당연한 이치입니다. 그러기에 통일교인들은 쉬지 말고 그 길을 가야 합니다. 갈보리 산상에서 예수님이 죽음의 자리에서도 기도하며 전도한 것처럼, 통일교회 여러분은 사망의 어둠이 휩쓰는 이 천지 가운데서도 전도를 해야 됩니다. 지옥에 가더라도 그 속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을 전도하라는 것입니다. (15-340, 65.12.7, p. 887)

신앙생활은 부업이 아닙니다. 주업 중의 주업입니다. 사람을 만나도 내가 만나는 그 사람에게 지금 말씀을 전하지 않으면 그 사람이 돌아가다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자기 부모라든가 형님이나 누나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늦게 되면 말씀을 전해야 할 텐데 내가 바빠서 미안하다고, 언제 다시 한 번 만나기를 바란다고 인사라도 해서 조건을 남기고 가야 됩니다.

(269-72, 95.4.7, p. 887)

전도는 생명을 접붙이는 일이기 때문에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을 놓고도 정성 들이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일생을 걸어 놓고 몇 사람한테 정성을 들여 보았습니까? 자기를 위해 정성 들여 주는 사람이 많다고 자랑해서는 안 됩니다. 정성을 들이는 사람은 복을 받지만 정성 들인 것을 받는 사람은 복을 받지 못합니다. 그러기에 내가 정성을 들여 주어야 합니다. 정성을 들여 주었는데 그가 말을 안 듣는다고 외로워하거나 슬프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천리원칙이 그렇다고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절대로 서럽거나 외롭지 않습니다. (42-174, 71.3.4, p. 888)

전도는 누구 때문에 하느냐? 하나님 때문에 하고 인류 때문에 하지만, 내 아들딸 때문에, 그리고 나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우리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누구를 원망할 것이 없습니다. 자기를 원망해야 됩니다. 누구한테 하라고 할 것이 아니라 내가 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소원하는 살 곳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66-288, 73.5.16, p. 888)

전도는 배고픈 사람이 밥을 찾듯이 그렇게 해야 됩니다. 배고플 때 밥의 귀중함을 알듯, 그러한 마음을 갖고 해야 영계에서도 협조하고 상대가 생기는 것입니다. 본업으로 해야 됩니다. 제일 중요한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142-292, 86.3.13, p. 888)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 그 사랑을 주어야 하므로 전도를 안 할 수 없습니다. 위로 하나님을 모시는 중간 자리에 서려면 자기 아래가 필요하므로 전도해야 됩니다. 내 죄까지도 책임져 줄 수 있는 신앙의 자녀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전도는 교회를 위한 것이 아니고 자기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정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면 전도가 되는 것입니다. (18-44, 67.5.17, p. 888)

전도하러 돌아다니면서 가게 되면 하나님이 동행해 주는 것입니다. 전도를 거꾸로 하면 무엇입니까? 도전입니다. 내가 가는 데 있어서 적이 있으면 적을 물리쳐 주는 하나님과 같이하면 만사가 형통하는 것입니다. 도전입니다. 전도, 도전! 그것을 못하는 사람은 자꾸 까라잡니다. 아버지가 싫어하고, 할아버지가 싫어하고, 할아버지 후손, 아버지 후손, 자기 아내, 아들딸까지 좋아하지 않습니다. 아버지는 아버지로서, 어머니는 어머니로서 도전해야 됩니다. (555-73, 07.2.8, p. 889)

## 14 일차 훈독말씀

전도를 할 때의 철칙으로 알아야 할 것은 그 지역에서 태어난 충신, 애국자, 효자, 교회 목사들 이상으로 그곳을 위해서 정성을 들이라는 것이다. 그러면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모두 다 협조하게 돼 있다.(179-20)

하늘이 협조하게 하기 위해서는 어때야 하느냐? 하늘은 자기를 중심삼고 생각하는 그 사람이라면 무엇을 하든지 멀어집니다. 멀리 가는 것입니다. 제일 나이 많은 사람이 몇 살이에요? 『스물 아홉입니다.』 좋은 나이로구만. 여러분이 교역자가 되려면 일생의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내가 몇 년에서 몇 년까지, 몇 년에서 몇 년까지 40명이면 40명을 전도하는 데 어느정도까지 기반을 닦겠다 하고 각자가 하늘과 약속을 해 가지고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는 많은 사람을 정했으면 많은 고생을 해야 됩니다. 정성을 들여야 합니다.

오늘 여기서 간증한 히라 군을 보더라도, 그 믿음의 어머니라는 사람이 매일같이 정성들이고 방문했던 그 사실로 말미암아 인연되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끊임없이 계속해야 된다고요. 전도하기가 쉬운 게 아니라구요. 아들딸을 낳아서 기르는 3배 이상 수고해야 됩니다. 3배 이상.

그리고 일하는데 맨 처음부터 잘되면 안 됩니다. 반드시 고개를 넘어가야 됩니다. 탕감길이 있기 때문에 고개를 넘어가야 된다 이겁니다. 고개를 넘어갈 때까지 많은 반대를 받는 것입니다. 반대를 받을 때는 그 반대 받는 환경을 싫어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나를 앞날에 하늘이 크게 쓰기 위한 것이다. 복을 주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참고 참고 넘어가게 되면 하늘이 직접 복을 줄 수 있는 때가 오는 거라고요.

그래서 맨 처음에 어느 지역을 맡았으면 처음부터 맡은 지역 전체를 편답하지 말고 어느

지역이면 지역을 정해서 그 지역을 중심삼고 하나도 놓치지 않고 매일같이 정성들여서 거기에 있는 모든 물건, 거기에 있는 사람, 집집마다 전부 찾아다녀 가지고 어떤 사람이 살고 있는가를 파악해서 상·중·하로 정해 그 비율을 알아 가지고 반대하는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수고를 더 많이 투입하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반대하는 사람들을 감동시켜서 돌이켜 가지고 지지하는 사람으로 만들어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지하는 사람을 어떻게 절반 이상 넘기느냐 하는 목표로 해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정성들여 나가는 거예요.

자기 개인 가지고는 안 됩니다. 하늘을 어떻게 움직이느냐, 영계를 어떻게 동원하느냐 하는 것을 자기 자신이 동기가 돼 가지고 시작해야 됩니다. 그래 놓으면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뜻 있는 어떤 청년이 온다고 자기 조상을 통해서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오게 되면 자기 꿈 가운데서 보여 준 사람이라고 해 가지고 환영하고, 그런 일들이 자꾸 벌어져야 됩니다.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으면 발전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이 나이 20, 30세 가까이 되도록 살기를 자기 중심삼고 살겠다고 생각하고 살아왔기 때문에, 일생 동안 하나님과 같이 전체를 위하고 나라를 위하고 혹은 다른 사람을 위한다는 생각을 갖지 않고 살았기 때문에 그런 생활이 근본적으로 달라져야 됩니다.

## 15 일차 훈독말씀

통일교회 안에서 사랑받고 흠모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인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이 돼야 한다.(82-54)

여러분은 언제나 하나님을 모시고 부모님을 모시고 가기 때문에 언제나 통일교회 전체를 대표한, 뭐라고 할까, 등대와 같은 입장에 있다는 것을 느껴야 됩니다. 여러분이 생각하지 않는데도 여러분의 마음이 '아, 부모님한테 가고 싶다. 부모님 보고 싶다. 하늘을 만나고 싶다!' 하는 말이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는 경지까지 가야 됩니다.

그런 말이 나오는 것은 오매불망이라고 할까, 이래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마음의 호수예요, 마음의 호수. 부모님에 대해서, 하늘에 대해서 느끼던 그런 말이 일반 사회에, 일반 사람에 대해서도 나가는 거예요. '누구 누구는 이렇게 하면 좋겠는데 왜 그렇게 하나?' 하면 반드시 그 사람은 심판받아 나가는 것입니다. 자기가 말한 대로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자리에서 기도하면 모든 것이 즉각 이루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늘이 아는 사람의 기도는 무서운 것입니다. 심각한 거예요. 신앙생활은 부업이 아니에요. 주업 중의 주업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을 만나도 내가 만나는 그 사람에게 지금 말씀을 전하지 않으면 그 사람이 돌아가다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 사람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자기 부모라든가 형님이나 누나라고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늦게 되면 말씀을 전해야 할 텐데 내가 바빠서 미안하다고, 언제 다시 한 번 만나기를 바란다고 인사라도 해서 조건을 남기고 가야 됩니다.

이런 생활 태도가 1년이 가고 2년이 가고 시간이 갈수록 점점 떨어진다라는 거예요. 전도에 대해서 무관심해지고, 더구나 자기만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통일교회에 들어와 가지고 점점 발전하지 못하는 것은 그런 입장에서 생각하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만나는 사람을 자기가 사랑하는 가정의 식구와 같이 대해야 됩니다. 그들이 뜻을 모르면 지옥 가는 거예요. 이들을 책임지고 인도하겠다는 그런 마음이 간절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 결론은 하늘을 모시고 하늘에 기억되는 생활을 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을 보내면서 부탁하고 싶은 말이에요.(269-0071 1995.04.07)



## 16 일차 훈독말씀

하나님이 사랑의 심정으로 창조하신 만물들이 수억년 전부터 지금까지 존재하고 있었던 것은 나를 위한 것이었다고 생각하고 감사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럴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심정권에 가까운 것이다.(328-276)

아버님! 저희들은 인류를 창조하시던 아버지의 본연의 심정을 알지 못하고 있사옵고, 저희들의 슬픔을 몰아낼 수 있는 아버지의 사랑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사옵습니다. 이제 저희들의 모든 것을 희생시켜서라도 아버지의 사랑을 찾아야 되겠사옵고, 아버지와 저희와의 본연의 인연을 회복해야 되겠사옵습니다.

아버님! 저희들 이제 마음문을 열고 열어 당신의 심정이 무엇이고 당신의 사랑이 무엇인가 스스로 찾을 수 있게 허락해 주시옵고, 또 귀를 열어서 아버지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고, 하늘이 허락하시는 은사를 받을 수 있는 아들딸을 찾고 계시는 아버지의 모습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뜨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으며, 저희들을 위하여 수고하신 아버지의 손길을 알게 허락하여 주시옵고, 참으심의 그 심정을 체휼할 수 있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수고하며 참아 나오신 아버지의 심정을 저희도 조금은 알고 있사오니, 저희들의 마음 몸을 온전히 아버지의 것으로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무지하여 사망권 내에 사로잡힌 아들딸들이 있사올진대는, 아버지, 친히 은혜의 손길을 다시 펴시어서 전체의 창조의 역사를 일으키시옵고, 본연의 호소의 심정을 대할 수 있고, 아버지의 마음 앞에 화동할 수 있는 이 시간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길, 아버지,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마음을 다하여 섭리하신 아버지의 뜻이 있다는 것을 알았사옵고, 천정의 노정을 밟아 나오신 역사노정이 있다는 것을 알았사옵습니다. 이것은 오직 하늘과 통할 수 있고 하늘을 대할 수 있는 가치관을 찾아 나온 사람들을 통하여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고 있사옵습니다. 역사적인 모든 죄악과 시대적인 모든 죄악과 미래적인 모든 죄악의 원천을 근절시켜야 할 사명이 저희들에게 있다 할진대는, 죄악에 끌려 가책받지 않고 아버지의 사랑 속에서 감사드리고 싶은 마음의 충동이 일어날 수 있는 아버지의 직접적인 사랑의 역사가 나타나게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아버님,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니다.

천륜의 진리를 통하지 않으면 안 될 때가 되었고, 천륜의 인격을 통하지 않으면 안 될 때가 되었으며, 아버지의 사랑을 통하지 않으면 안 될 때가 되었다는 것을 알았사옵습니다.

아버님! 모든 인류에게 아버님의 사랑을 소개할 수 있는 말씀이 나타나게 허락하여 주시옵고, 아버님의 사랑을 증거할 수 있는 인격자가 오늘 이 끝날의 못 백성 앞에 나타나게 허락하여 주시옵길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니다. 그 진리를 따를 수 있는 저희들의 마음 준비와 터전을 갖추게 허락하여 주시옵고, 아버지의 뜻 앞에서 모든 것이 밝혀질 수 있는 그 날이 역사 앞에 어서 속히 나타나게 역사(役事)하여 주시옵길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오면서, 모든 말씀 주의 이름으로 아뢰었사옵나이다. 아주. (1958. 2. 16)

## 17 일차 혼독말씀

하나님의 사랑을 중심삼은 신랑과 신부가 되어서 하나님과 영원히 같이 살 수 있는 하나의 가정을 만들자는 것이 종교의 귀착점이다. (79-190)

창조원리에 의하면 이성성상을 중심삼고 모든 존재물, 천지 만물이 생존하게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아무리 영적인 중심이라 하더라도 인간의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이 중심으로 결정되지 못하면 참으로서 완전히 존속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이 인간을 찾아 나오시는 목적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인류 자체에게는 스스로 하나님을 중심존재로 찾아 세우지 않으면 안 될 사명이 있다는 것을 우리들은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보잘것없는 나라는 한 존재는 흘러가는 역사 가운데 그저 왔다 가는 개인이 아니라, 흘러가는 역사를 가로막는 오늘날 이세계의 중심으로서, 미래의 새로운 개척자로서, 참된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으면 안 될 엄청난 사명을 지니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개인은 참된 가치의 내용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도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겠느냐?(마 16:26)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것을 볼 때, 내 개체는 전체를 넘어선 가치적인 내용을 지니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내 자신을 중심삼고 참된 내용을 갖추지 않고는 참된 세계를 이룰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이러한 광범한 의미에서, 예수님도 개체의 인격의 가치를 그와 같이 평하지 않을 수 없었던 사실을 우리들은 알아야 되겠습니다.

성경 말씀에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 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인간 자신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을 중심삼고 하나님과 일치된 자리에서 전체의 중심으로 나타날 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대신 존재로 나타날 때 참된 모습, 의의 모습, 선의 모습으로 결정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들은 알아야 되겠습니다.

남자면 남자 한 사람이 참된 모습이 되었다고 남자 하나로 끝날 것이 아니라 반드시 참된 가정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참된 가정은 가정만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반드시 참된 사회로 발전시켜야 되고, 참된 사회는 참된 민족, 참된 민족은 참된 국가, 참된 국가는 참된 세계로 발전시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계가 중심이 아니요, 나라가 중심이 아니요, 또한 어떠한 가정이 중심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중심은 어디까지나 우리 자신들이라는 것을 확실히 알아야 되겠습니다.

## 18 일차 훈독말씀

통일교회가 나와서 해야 될 사명이 있다면, 그것은 교인을 많이 거느리는 것이 아니다. 천 사람을 주고도 바꿀 수 없는 한 사람이 필요하다. 견본이 될 수 있는 진정한 한 사람이 필요한 것이다.(150-187)

어려운 살림을 하는 사람들이 전도를 하게 될 때도, 선생님도 물론 개척전도를 했지만 '돈 있는 사람을 전도해야 되겠다' 하면 틀린 것입니다. '하늘이 찾는 사람을 전도해야 되겠다'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알겠어요? 여러분은 돈 있는 사람을 전도해야 되겠다, 실력 있는 사람을 전도해야 되겠다고 할지 모르지만, 하늘이 찾는 사람은 돈 있는 사람이 아니요, 실력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알겠어요?

하늘이 찾는 사람을 전도해야 되겠다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일자무식인 할머니가 될 수도 있습니다. 애교도 없고 사교성도 없는 할머니... 감자를 주더라도 주먹으로 확 이렇게 주는 것이 그들의 생활방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무뚝뚝하기가 이루 헤아릴 수 없는 사람들, 그들은 다듬어지지 않은 순금을 많이 품고 있는 광석과 같다는 거예요. 부자가 되려면 광맥을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금반지라고 해서 반짝반짝 빛나는 것은 가짜일 수 있지만 광석에 박힌 순금은 진짜라는 거라구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을 만나게 되면 자기 위신이나 체면을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밤을 새워서 이야기를 하더라도 좋아한다는 거예요. 벌써 이야기를 해보면 안다는 거라구요. 하늘이

사랑하는 사람과 이야기하면 이야기하는 시간에 마치 시를 읊는 것 같은 말을 자기가 하는 것을 느낀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심정이 문학세계에 있어서 이상향에 들어가 가지고 그리는 사람들을 만난 기분이 난다는 거예요. 그때에 하는 말은 세상적인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이가 많은 할아버지든 누구든 밤을 새워서 얘기해도 진지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체험하게 되면 그 앉았던 자리가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러한 마음의 자세를 여러분이 체휼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것을 주고받으면 반드시 번식이 벌어지고, 그런 사람들을 중심 삼고 주체 대상 관계를 맺게 되면 반드시 하늘이 협조해 나간다는 거예요. 지금까지의 관점의 눈을 갖지 말라는 거라구요. '내가 그래도 몇백명 앞에서 승공강의를 하던 사람인데 이 한두 사람을 대해 이야기할 수 있겠느냐' 하겠지만 천만에. 진짜는 하나밖에 없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진짜는 하나라구요.

정성을 들이는 데는 대중을 위해서가 아니라 한 사람을 위해서예요. 하나님도 6천년 동안 대중을 위해서 정성들인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을 위해서 정성들인 것입니다. 그렇지요? 잃어버린 아담 한 사람을 찾기 위해서였습니다. 완성한 아담 한 사람을 찾기 위해, 일구월심 수천년 역사를 다 잊어버리고라도 진짜 한 사람을 찾기 위해 지금까지 수고해 나오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 아니냐는 거예요. 그런데 대중이 '와아' 한다 구?'와' 하고 난 뒤에 뒤로 돌아서 '해산' 하게 되면 다 뛰쳐 나가 버리는 사람은 천만 명이 있더라도 쓸데없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이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완전한 씨는 한알 한알 되는 것입니다. 한알 한알이 완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완전한 씨라면 내가 몇개의 완전한 씨를 만드느냐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내가 죽더라도 이 전통을 이어받아서 이 뜻을 자손만대에 남길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을 언제나 생각해야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많은 사람이 문제가 아니예요. 여러분 자신의 신앙생활의 인격적인 모든 소양도 문제겠지만 입체적인 실력이 부족하다는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다는 것을 여러분이 알아야 되겠습니다. 056-0027 1972.05.10)

## 19 일차 훈독말씀

기도를 할 때 자기 소원의 기도보다는 기도를 받을 수 있는 마음을 가져라! “영계에서 나에게 무슨 말을 할 것이냐?” 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면, 기도의 방향이 달라진다. 그러면 자기를 중심삼고 기도한 것이라도 국가를 위하고 세계를 위한 기도가 된다.

책임자는 강의 실력이 있어야 합니다. 원리만 알아 가지고는 안 돼요. 그걸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원리를 중심삼고 보편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고, 또 그런 지식이 있어야 합니다. 실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신앙인으로서의 인격을 갖추어야 됩니다. 영적이면 영적인 세계에 있어서 보조를 맞춰 주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기도가 필요하다구요. 기도를 할 줄 모르는 사람은 생명을 부활시킬 수 없습니다. 책임자는, 더욱이 종교 지도자는 일생 동안 눈물이 말라서는 안 됩니다. 한 가정의 부모가 많은 자식을 기르기 위해서는 어려운 일이 있을 때나 기쁜 일이 있을 때나 언제나 눈물이 앞서는 것과 마찬가지로, 종교 지도자는 눈물이 말라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자기나 자기 가정을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냥 세월을 흘려 버려서는 안 됩니다.

나무가 자라야 열매를 맺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자라지 못하는 나무는, 정지되어

있는 것은 죽는 것입니다. 퇴화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계선에 머물렀다 할 때는 반드시 인사조치 하는 것입니다. 전부 고향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이제부터는 고향에 가야 됩니다. 될 수 있는 대로 고향으로 돌아가야 돼요. (207-197)

신앙길이라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을 추구해 나가기 때문에 그 목적이 막연할 때는 힘이 안 나온다. 그것을 확실히 알고, 보이는 것보다도 더 확신을 가져야만 지치지 않는다. (61-144)



## 20 일차 혼독말씀

상을 타겠다는 마음보다 앞서 가지고 여기 와 가지고 자연에 취해 선생님 말씀대로 하기 위해서는 무엇이든지 지금까지 못 한 것을 넘고 넘고, 헤엄쳐서 건너고 건너고, 건너지 못하면 날아서 넘겠다고 할 수 있는 나 자신이 되기 위해서는 너저분한 보따리 다 집어치워야 된다 이거예요.

깨끗한 공기같이 되고 깨끗한 수증기가 되어 가지고, 공기가 높으면 높은 구름이 되고, 낮으면 낮은 구름이 되어 환경에 초점을 맞춰 ‘어허둥둥 내 사랑이야! 내가 가는 데는 천국이 아닐 수 없다. 아멘. 만세!’ 할 수 있는 기쁨을 느끼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늘나라의 상속자가 되지 않을 수 없다는 결론이 타당한 결론입니다. 그것이 선생님은 틀림없는 결론이라 하니, 그 결론을 품고 내일부터 이 자리를 지키는 주인으로서 선생님 대신, 하나님 대신 하게 되면 틀림없이 이 집이 바라는 본향, 그 고향이 여러분의 집이 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나라가 없고 모든 이름이 없더라도 여기는 하나님의 이름을 따라서 나라 이름이 있는 것이요, 하나님의 나라 이름을 따라서 성명도 새로이 써서 하늘나라에 입적할 수 있는 모든 명부를 갖춘 내가 되어서 상을 받은 것을 하나님 앞에 돌려드리고, 그 다음에는 부모님 앞에 돌려드려 가지고 부모를 통해서 만민 앞에 내 상을 옮겨 주기 위한 주인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왔다고 하는 사람이 선한 사람이에요, ‘아이고! 내가 상을 받아 가지고 우리 후손들이 여기서 관광객을 유치해 가지고 노라리 신세로 어허둥둥 해서 뜯어먹고 살겠다.’ 하는 사람이 옳은 사람이에요? 하나님도 찾아와서 구경하고 싶고, 참부모도 그 집에 가 가지고 ‘내가 하지 못한 것을 했구만. 하나님이

남기고 싶어했던 것을 언제 이렇게 만들어 준비했구만.’ 그러면서 참부모까지 불러서 ‘야야야, 참부모 아무개야 와 봐라! 이 집이 우리보다 낫다. 우리 생각하던 이상까지도 노력했고, 제물 되어 가지고 하늘권으로 결정적 소유로 해 가지고 영원한 역사 이후에도 참부모님 것이라고 이름지어 놓고, 그 부모님의 사랑을 받은 후에 내가 사랑받겠다고 하는 패권자, 하나님의 창조이상권을 자동적으로 완성한 승리의 패권자가 아니냐. 네 축복, 내 축복을 이 가정에 머무르게 하고 천세 만세 이 가정을 통해 하늘땅의 왕족 왕권을 유지시키는 것이 어떠냐?’ 할 때, 참부모도 ‘예스.’ 하고, 하나님도 ‘예스.’ 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만민 만세의 것으로 돌려주소!’ 이러더라도 ‘참부모, 천지부모가 싫어하니 대신 네가 찾아가라!’ 하는 거예요. ‘세계를 돌아다니며 이 천사장이 실패했던 모든 걸 복귀해 가지고 하나님까지 위안시키는 왕자의 자리를 지킴에 틀림없다고 할 수 있는 내가 됐습니다.’ 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의 증거와 참부모님과 만민의 증거를 받을 수 있는 이런 사람이 되어야 하늘나라의 궁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실 수 있는 왕자 왕녀의 상속을 받을 수 있는 아들딸이 됴에 틀림없다 하는 것을 알아야 되겠어요. 아시겠어요? 「예.」 (404-185)

## 21 일차 혼독말씀

자기를 모시라고 하는 데는 혼란이 벌어집니다. 그런 전통을 중심삼고 나가면 할아버지는 할아버지 전체, 아버지는 아버지 전체, 자기를 중심삼고 모든 것이 알알이 갈라지는 것입니다. 뿌리는 전체를 지탱하기 위해 제일 깊은 데 들어가서 나타나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큰 나무일수록 깊이 들어가서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책임자는 나타나지 않고 전체를 위할 수 있어야만 하늘나라의 도수에 맞는 존재의 자리를 지켜 나갈 수 있는 거예요.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으로부터 이어받은 자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각과 자주적인 생활을 한 것이 타락이에요. 그건 무엇을 중심삼고? 사랑을 중심삼고. 무슨 사랑? 참사랑. 제일 귀한 것을 꺾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바로잡는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워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한 이래 몇천만년이에요. 몇천년이 아니에요. 몇천만년의 세월을 보냈는데 그게 안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책임이 아니고 인간의 책임이기 때문에, 아담의 책임이기 때문에, 아담이 무지해서 타락한 것을 전부 다 깨쳐 가지고 이 모든 단계를 개방해 가지고 지상에 그런 상대적 권이 벌어져야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하루 이들의 사실이 아니고 하나님이 얼마나 오래 고대했는지 모릅니다. 하나의 천명이라고 할까, 운명적이 아니라 숙명적인 하나님이 고대하는 그 세계를 역사 전체가

탄식으로 품었다는 사실을 알 때, 내가 하나님의 숙명적인 해방의 자리에 서기 위해서는, 모든 역사를 대표한 산 제물이 되겠다는 마음을 가져야 비로소 풀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산 제물이 돼야 돼요.

제물이라는 것은 존재 의식을 가질 수 없습니다. 어디나 마음대로 갈 수 없다는 거예요. 사탄 편과 하늘 편, 둘 사이에 있는 산 제물은 자기 존재 의식이 없어야 되기 때문에 피를 흘리게 해 가지고 두 갈래로 갈라놓는 것입니다.

그걸 누가 하나 만들어 주느냐? 누가 그 가치를 하나 만들어 주느냐? 사람이 해야 돼요. 하나님도 마음을 중심삼고 갈라놓은 것입니다. 갈라놓아 가지고 두 개 된 것을 아들이 하나돼 가지고 하나 만들어 줘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들어 주지 않아요. 아담이 했기 때문에 아담이 만들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보다도 더 곡절의 심정을 느끼지 않고는 이 고개를 넘을 수 없는 것입니다. (329-262)

## 22 일차 훈독말씀

우리는 뜻을 가면서도 교회와 격리되기 쉽다. 교회 안에 있는 내가 아니라 나 자신을 중심삼고 교회생활을 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다.(42-97)

통일교회에 들어와 가지고 지금까지 가졌던 습관성, 땡땡이 부리고, 선생님이 부르면 ‘또 사랑 얘기하겠구만?’ 하면서 ‘이히히히!’ 이려고, ‘나는 지혜롭고 똑하니까 살살살 다니면서 떡 먹을 때 떡 얻어먹고 물 먹을 때 물 얻어먹으면 된다. 그렇다고 설마 문 총재가 교회에 명단 가지고 와서 나를 쫓아내겠나. 나도 통일교회 잘 믿고 아들딸이 있으니 좋은 색시 신랑도 얻어 주겠지.’ 하는 모든 습관성을 뽑아 버려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딸 되는 것이 세상 나라 박사학위 따는 것보다 쉽겠소, 어렵겠소? 「어렵습니다.」 얼마나 어려울 것 같아요? 「많이 많이 어렵습니다.」 얼마나 많이? 한꺼번에 죽는 것이 아닙니다. 눈이 하나 죽을 때까지, 코가 죽을 때까지, 귀가 죽을 때까지, 입이 죽을 때까지, 그 다음엔 손이 죽을 때까지, 그 다음엔 온몸이 죽을 때까지 그런 싸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공짜로 삼킬 수 있을 것 같아요? 삼키지 못합니다. 입에 들어가다가 막혀 버려요. 알겠어요? 왜? 습관성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우리 같은 사람은 예민하기 때문에 비린내가 나든가 하면 입에 있는 걸 왁 토해 버립니다. 절간에서 비린내에 질색하는 거와 마찬가지로 말이에요. 종교 지도자들은 예민해요. 그 성격은 어쩔 수 없습니다. 어렸을 때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영계에 가도 마찬가지가 아니겠느냐 생각하는데, 마찬가지일 거예요. 습관성이 그래서 무서운 것입니다.

타락한 세계에서 지금까지 역사성을 지녀 나온 가정 울타리, 종족 울타리, 일족 울타리에 그 습관성이 전통으로 남아 있고 그 전통을 따라 국가체제가 돼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극복하느냐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네 에미나 애비나 네 아들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나에게 합당치 않다고 했고, 네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했어요. 그러지 않고는 암만 사랑한다고 해도 사탄이 달려 있는 몸뚱이에 습관성이 남아 있다는 거예요. 습관성을 말한 것입니다. (213-36)

선생님이 가는 길은 개인주의적인 길을 가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민족주의가 바라보는 길이 아닙니다. 이것은 세계주의인 동시에 천주주의이며 하나님주의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주의냐 하면 세계를 통합하고 남을 수 있는 자리까지 넘어설 수 있는 주의이고, 그 자리를 넘고, 고개를 넘어 가지고 그 자리를 점령하여야 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에게 문제되는 것이 무엇이나? 세계를 대표한 자리에 서서 통일교회 교인들이 가야 할 것인데, 살고 있는 생활 환경이 민족권 내에 포괄되어 있고, 종족권 내에 포괄되어 있고 지금까지 자기 생활을 해나가는 일족권 내에서 습관화되고 풍속적 환경에 포위된 입장에서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으로 말미암아 대표적인 입장에서 선 자리지만 살

고 있는 것은 지금까지 각 국가, 각 족속, 수많은 족속, 수많은 가정의 한면에 선 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4시간 생활하는 중에 대표자의 의식을 갖고 있는 시간이 몇 시간이나 되겠느냐는 것입니다. 그 대표자의 의식을 통해 가지고 생활 환경을 총괄적으로 끌고 나가야 환경을 소화하고 남을 수 있고, 모든 고난을 승리한 세계의 대표자로서 국가를 넘고 미래 세계를 넘어갈 수 있는 이런 뒷받침이 될 수 있는 요건을 조성해 나갈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못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출발은 천주주의니, 하나님을 위하느니, 세계주의니 하면서 출발하지만 결국에 수십 년 지나고 보니 옛날에 통일교회 들어올 때의 한국 사람이요, 그 집안의 한 사람으로 되돌아가 버렸다는 거예요. 사실이 그렇게 되었다 할 때에 이 사람들 데리고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이 바라는 세계, 통일적 우주시대, 통일적 하나님 권한의 통일시대가 왔다고 할 때에 이 사람들이 거기에 가서 소용이 될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될 수 없습니다. 사람의 습관성이 무서운 것입니다. 이미 습관성이 되어 버렸다는 거예요. (254-14)

## 23 일차 혼독말씀

오늘날의 젊은이들은 아픔이 많습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해 자신이 못나고 가진 것이 없다고 한탄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포기해 버릴까' 하는 자포자기의 심정이 문득 고개를 들고, 자신을 돌아보기보다는 다른 사람을 탓하거나 시대를 원망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처해 있는 상황이 어렵고 힘들수록 처음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청춘 시절에는 유혹도 많고, 고민도 많고, 욕구도 많습니다. 그것들을 이기는 방법은 뜻을 세우는 것입니다. 청춘 시절에 뜻은 매우 중요합니다. 또한 그 젊음이 오래가지 않는다는 것도 알아야 합니다. 가슴 뛰는 꿈을 향해 자신의 청춘을 아무런 미련 없이 완전히 바쳐야 합니다. 그때 어떤 뜻을 지니고, 누구와 더불어 그 뜻을 펼쳐 가느냐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루하루 생을 개척해 나가지 못하고 능동적으로 살지 않으면 비관과 낙망의 수렁에 빠져 헤어나지 못합니다.

어떤 청년들은 불평불만을 터뜨립니다.

"노력하면 된다고 어른들은 말하는데 ……누군들 노력하지 않나요? 노력해도 안되니까 일찌감치 포기하는 거죠."

"내 잘못이 아니라 사회가 잘못된 것 같아요."

비관적인 청년들의 불만과 불평은 자기 자신이 아니라 늘 타인을 향합니다. 하지만 사회를 탓하기 전에 자신을 하얗게 불태워 노력한 적이 있는지 진정으로 되돌아보아야 합니다. 청년이 걸어야 할 길은 불평과 불신의 길이 아닙니다. 희생과 봉사, 사랑을 할 수 있는 순수의 길이어야 합니다.

나는 한국의 대학생과 청년들을 올바른 길로 이끌기 위해 대학 순회강연을 여러 차례했습니다.

1993년 가을에 40개 대학을 순회하며 강연을 했는데 그 노정은 몹시 길고 험했습니다. 몇몇 대학에서는 반대하는 학생들로 인해 교문에서 돌아서기도 했지만 중국에서는 모든 대학에서 강연이 이루어져, 대학생들에게 청년시절의 뜻을 어떻게 이룰 것인가에 대해 들려주었습니다. 모스크바, 베이징, 워싱턴DC 등에서 청년대학생세미나를 열어 남북한 대학생과 교수들이 참석해 서로를 이해하고 통일을 찾아가는 뜻깊은 자리도 만들었습니다.

나는 그 무엇보다 인재 양성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미래의 지도자를 길러 내기 위해 전 세계의 열정적인 청년들을 모아 '글로벌 탑건'이라는 이름 아래 인류 구원과 세계평화에 이바지하도록 가르치고 있습니다. 나는 성경의 인물들 가운데 여호수아와 갈렙을 좋아합니다. 둘 다 명문가의 자손이었습니다. 그들은 80세가 넘도록 하늘 앞에 충성했습니다. 갈렙은 부족할 것이 없었던 사람인데 여호수아와 하나가 되어 나라와 민족을 위해 충성을 다했습니다. 나는 '글로벌 탑건'의 인재들을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하늘 앞에 정성을 다할 수 있는 인재로 키우고 있습니다.

신라는 나라의 장래를 보고 지도자를 길렀습니다. 지도층 자녀들로 구성된 화랑도라는 단체를 만들어 나라의 지도자를 양성했습니다. 화랑이란 '꽃처럼 아름다운 젊음'이란 의미로, 충절과 미래를 향한 도전을 상징합니다. 화랑도는 청소년들에게 학문과 무술을 가르쳤으며, 자연을 찾아 마음을 다스리고 계급간의 갈등을 조정하는 역할도 했습니다. 전쟁에 나가서는 절대 후회하지 않았으며, 포로가 되기보다는 당당한 죽음을 선택했습니다. 이러한 떳떳하고 자랑스러운 화랑도 정신에 의해서 신라가 삼국을 통일할 수 있었습니다.

미래인재 양성을 위해서는 때를 놓치면 안 됩니다. 자신의 부모보다도 더 크게 하늘 앞에 충효를 다한다는 각오 아래, 공부는 물론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도록 이끌어야 합니다. 그래서 나는 천일국 건설의 미래인재 양성을 위해 화랑도를 능가하는 '효정랑'이란 이름으로 특별히 교육하고 있습니다.

미래의 주인은 청소년과 젊은 청년입니다. 어떤 어려움이 닥쳐도 스스로를 갈고닦아 반드시 승리해야 합니다. 높은 곳과 낮은 곳을 가리지 말고 몸과 마음을 불살라 하늘부모님과 역사에 길이 남을 효자·효녀, 충신이 되어야 합니다. 지금 겪고 있는 아픔이 내일의 든든한 밑거름이라는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인류의 눈물을 닦아주는 평화의 어머니 中 가슴 뛰는 꿈을 향해 청춘을 바쳐야>

## 24 일차 혼독말씀

사람이 낮과 같이 밝고 기쁠 때, 하늘은 가르쳐 주는 것이다. 그래서 사람은 명랑해야 되고 언제나 감사하고, 무엇이든지 기분 나쁜 것이 있더라도 빨리 잊어버려야 한다. (91-27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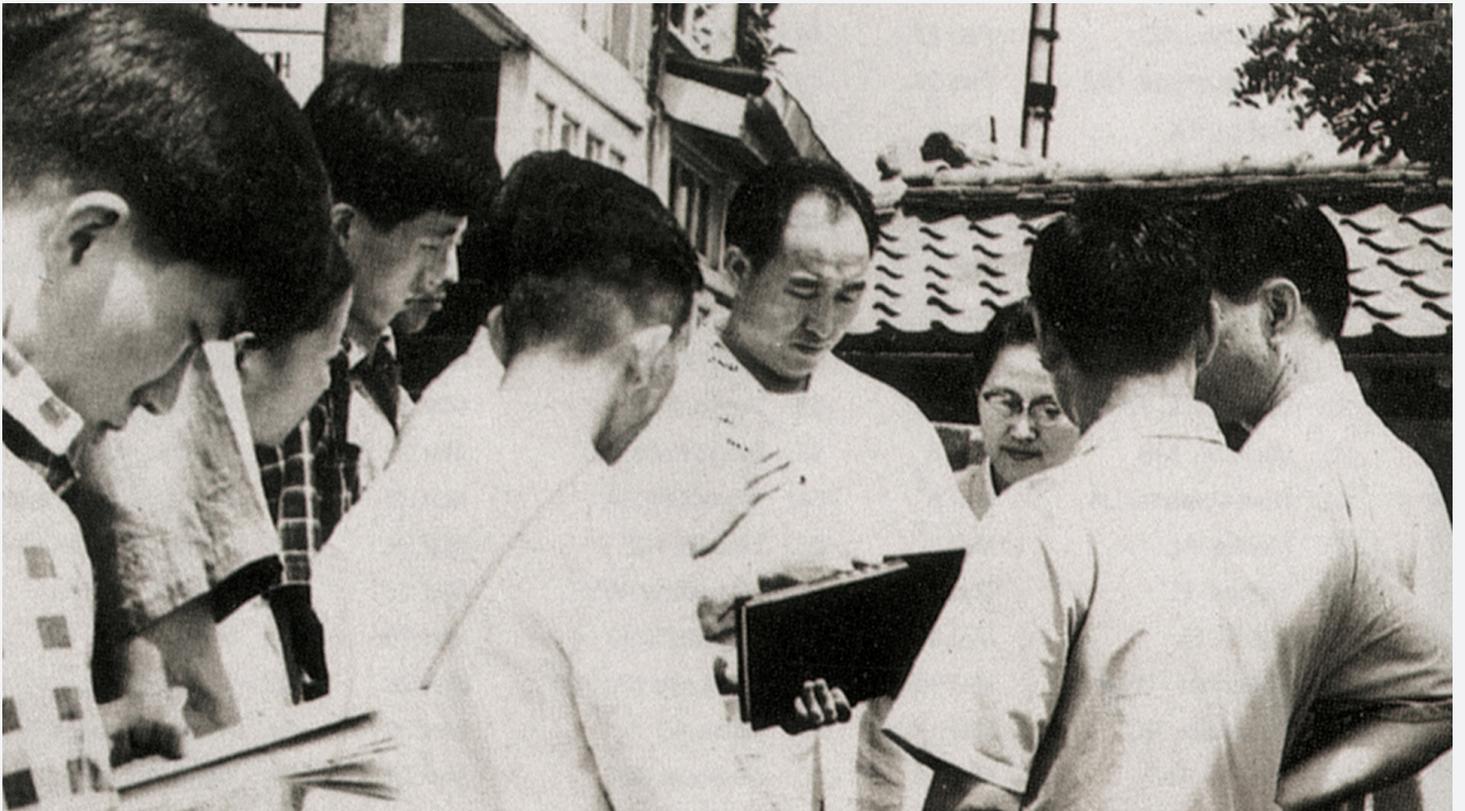
하늘의 부탁 ‘불평하지 말라’는 부탁

무서운 것이 뭐냐 하면 우리가 하는 말은 한마디라도 없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말이 천년만년 무한한 세계에 전파된다고 생각해 보라구요. 그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 말이 없어지지 않으니까 행동이 없어질 수 없다는 거예요. 이 우주 어디에나 그것이 전부 다 반영되고 반사되고 찍혀진다고 생각해 보라구요. 그것을 볼 때, 인간의 생애가 얼마나 엄숙한 일생이냐 이겁니다. (237-316)

뜻길에서는 되면 자기를 쳐야 돼요. 자기를 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길을 이렇게 가야 편안히 갈 수 있는데 반대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늘이 내 갈 길을 닦아 준다는 거예요. 반대로 가면 그게 지나가게 되니 하늘이 협조 안 할 수 없다구요. 탕감해 가지고 다 지나온다 할 때 그건 뭐냐 하면, 그 환경을 전부 다 극복해서 넘어서는 거라구요. 그 넘어서는 데 비례해서 반대로 갔으니, 그만한 차이에 해당하는 것을 하나님은 넘어서신 내가 선, 그 자리에서 꼭 개척의 길을 연결시키는 거예요. 미래를 연결시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불평하는 사람은 거기서부터 부딪치는 거예요. 더 가지 못한다는 겁니다.

사람을 쓰더라도 일을 끝내는데 다섯 시에 끝내라고 해서 네 시에 끝냈는데, 또 다섯 시부터 그 배로 일하라고 명령을 하는 사람버렸습시다. 그러한 입장에서든 그렇게 하는데, 천국을 지키기 위해서는 그것보다 더 심한 희생도 마다하지 않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희망이 없다가요. 알겠어요? 「하이.」 (333-83)



## 25 일차 혼독말씀

실천하는 데 있어서는 자기 개인의 생활권, 자기 개인적인 감정권 내에 공하여서 실천하는 것이 아니라, 세계적인 감정, 역사적인 감정과 더불어 관계를 맺도록 노력해 나가지 않으면 안된다.

하나님이 뜻을 성취해 드려야 할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자기 자신의 내외적인 문제만을 해결하는 삶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자신의 문제를 넘어서 전체적인 문제와 관계를 지어 영원한 가치를 실현해 놓겠다는 책임감을 갖고 나서야 됩니다. 그럴 때 여러분은 천적인 복음의 뜻을 성취해 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전도의 길을 나서면 하나님이 같이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러한 마음을 갖고 위하는 생활을 한다면 거기에는 반드시 사랑의 재창조역사가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002-014, 1957.01.06) p. 284

오늘날 우리들은 이와 같은 사명이 개인, 가정, 종족, 민족, 국가, 세계에까지 연결되어야 합니다. 종적인 역사가 횡적으로 이 시대권 내에 집약되어 있습니다. 개인이 탕감해야 할 노정이 있다 할진대 그 개인이 가정을 위해서 탕감노정을 간다면 가정이 망하더라도 그 개인은 남아지는 것이요, 그 가정이 세계적인 형극의 노정을 나서게 된다면 나라가 망하더라도 가정은 남아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관점에서 고차적인 문제를 책임지고 자기의 모든 것을 투입하여 개척자의 사명을 감당하겠다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자기의 입장에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걷는 것도 나라와 세계를 위하여 걷는다는 입장에 서야 되고, 사는 것도, 자는 것도, 가정을 투입하는 것도 나라와 민족과 세계의 해방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이런 각오로 나가는 날에는 천주 해방은 시간 문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나라를 위해서 가야 됩니다. 나라가 여러분을 찾아올 때까지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까지 10년, 혹은 일생이 걸리고, 수십 대를 거치더라도 나라를 위해 가야 됩니다. 이런 입장에서 가게 되면 그 나라는 역사시대에 부활될 것이 틀림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희생하여 선각자의 사명을 하면 기필코 새나라를 창조해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들은 가정을 이끌고 나라와 세계를 위해서 가야 합니다. 대한민국에 있어서 개인적인 시대, 가정적인 시대, 종족적인 시대, 민족적인 시대, 국가적인 시대를 통해 나와 그 경험을 토대로 하여 세계의 민족과 국가 앞에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안내역을 맡아야 합니다. 안내역을 다하여 서로 떨어질 수 없는 입장에서 하나님을 모실 수 있어야만 영계와 육계는 통일된 평화의 세계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 안내자는 비로소 역사시대의 영원한 지도자로서 자리를 잡게 되고, 하늘 세계의 영광스런 표창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는 것이 틀림없는 사실이라는 것을 여러분은 분명히 알아야 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먼저 개척자의 사명을 하여야 하겠습니까. 여러분이 모험을 해서라도 안내역을 해 가지고 안내 받은 사람과 하나되어 하늘의 가정, 하늘의 국가 형성의 표준을 세우는데 지도자의 입장에 서야 하겠습니까. 그리하여 그 나라의 애국공신으로서 등장하는 자리에 서야 거기서부터 새로운 세계의 역사가 발전되어 간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확실히 알아야 되겠습니까.

<030-0116>

## 26 일차 혼독말씀

이 길을 가기 위해서는 미욱해야 됩니다. 충신들은 어떻게 보면 미욱한 사람들입니다. 조금은 미련해 보입니다. 곰 같은 성격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 팔을 잘리고도 어이구 여기 덜 잘랐다. 더 잘라라. (웃음) 하는, 그와 같은 미욱한 점이 있어야 합니다. 곰이나 멧돼지는 총에 맞아서 걸리적거리는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을 입으로 잘라 버리고 도망간다는 것입니다. 죽음은 나중에 생각하고 우선 걸리적거리는 것을 잘라 버립니다. 그런 미욱한 무엇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충신 열사는 미욱해야 합니다. 알겠습니까? 조금은 어리석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스데반 같은 사람도 세상적으로 보면 바보가 아닙니까? 나이 30도 못 된 젊은 사람이 무엇 때문에 돌팔매를 맞으면서도 하나님 앞에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했습니까?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얼마나 처량합니까? 가만히 계실 일이지 뭘 하려고 돌아다니면서 오병이어로 오천 명을 먹이고, 야단하다가 나중에 그렇게 죽어 가느냐 말입니다. 가만히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러면 대한민국에서 제일 고생을 많이 해야 하는 단체가 어느 단체입니까? 「통일교회입니다.」 고생의 왕이 되지 않고서는 기쁨의 통일이 시작될 수 없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예..」 외로운 십자가를 어디에서 질 것이냐? 기쁜 자리에서 겸손하게 지려는 자가 충실한 사람인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국가의 친구가 될 수 있는 사람은 어떠한 사람이냐? 국가의 어려움을 책임지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세계의 친구가 될 수 있는 사람은 어떠한 사람이냐? 세계의

어려움을 책임지겠다고 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친구가 될 수 있는 사람은 어떠한 사람이나? 하나님의 어려움을 책임지겠다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참된 길은 어디에 있느냐? 기쁨의 길에 있는 것이 아니라 수난의 길에 있는 것입니다. 참된 사람은 수난이라는 두 글자를 소화시키고 극복하는 것을 생애의 철학으로 삼고 변치 않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세계의 고난길을 홀로 책임지고 밤이나 낮이나 누가 보나 안 보나 자기의 행복을 거기에서 찾겠다고 몸부림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

람은 곧 세계의 충신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이 참된 생애의 노정을 남긴다는 것을 알고, 여러분도 이제부터 그런 길을 걸어가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까? 「예.」

반가이 맞아 주는 웃음 뒤에는 슬픔이 올 수 있지만, 서로서로가 먼저 슬픔을 이겨 낼 자세를 갖추고 손에 손을 잡고 내일의 희망의 나라와 내일의 희망의 세계를 위해 결의해 나갈 때, 비로소 기쁨의 세계로 뻗어 나가는 것입니다. 기쁨의 세계가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내가 합하여 결의를 하고 세계를 부여안고 나서게 될 때 우리의 슬픔으로 인하여 세계에 웃음꽃이 필 것입니다. 이러한 길을 펴고, 이러한 길을 책임지고 나가는 사람이야말로 참된 생애를 남길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알고, 이 길을 피하지 않고 직행해 가는 여러분이 되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까? 「예.」 <026-0143>

## 27 일차 혼독말씀

최후의 귀일점은 인간적인 어떤 이념이 아니라 심정이다. 최후에 남아지는 이념의 한 곳을 향하여 움직여 나가게 하는 것은 심정이다. 심정이 최후의 내 전체를 결정지어 준다. 그 심정을 찾는 자가 말씀을 들을 수 있고, 환상을 볼 수 있으며, 생활의 모든 것을 분석할 수 있다.(6-121)

뜻길을 따라 나온 여러분은 자기 생명력과 사랑의 힘을 민족을 넘고 세계를 넘어 그 이상의 자리까지 투입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투입하는 생명력과 사랑의 힘이 교회 발전의 행로를 개척하는 요인이 되는 것입니다. 땅 위의 슬픈 사연을 품고 부딪쳐 가는 통일교회의 운명을 안고 몸부림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을 위해서 온갖 정성을 들이고 감사와 치하를 드려도 부족할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를 중심삼고 비판하고 자기와 관계가 되어 있지 않다고 무관하게 대해 버린다면 그는 거기에서 마지막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통일교회가 발전하는 사실을 바라보고 무한히 고마움을 느낌과 동시에 자신의 부족함을 느끼고 ‘오늘은 이렇지만 나에게도 힘을 주소서.’라고 해야 됩니다. 가을절기면 가을절기로 끝내고 겨울절기면 겨울절기로 끝낼 것이 아니라, 내 깊은 속에 깃들어 있는 내일의 봄날을 맞이하여 활짝 피어날 수 있는 생명력과 사랑의 힘을 찾지 못하면 여러분이 가는 길은 끝장이라는 것입니다.

(32-29, 70.6.14, p. 1022)

피어린 역사적인 길을 개척해 나온 그 생활이 슬프고 비참하였지만, 그것이 자기 일신의 행복을 위한 것이 아니라 민족의 해방과 세계의 평화를 위한 하늘의 사자로서 그런 일을 했다면 이는 길이길이 역사에 남을 것입니다. 그 실적이 드높이 빛나게 될 때에 이 터전을 통하여 남북한의 해방은 물론이요, 아시아의 새로운 해방의 종소리가 울려 퍼질 것이고, 세계 해방의

기운이 여기서부터 솟구쳐 오를 것입니다. (59-153, 72.7.16, p. 1117)

제2의 조국광복을 위해 삼팔선을 타파하고 만민 앞에 자랑할 수 있는 아시아의 새로운 결실로 나타날 수 있어야 합니다. 한민족의 역사적 처참사를 딛고 새로운 문화를 창건해야 될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것을 알고, 약한 손을 서로서로 맞잡고 약한 몸을 움직여 하늘을 향하여 쌍수를 들어 맹세해야 됩니다. 지금이 바로 그 순간이라는 것을 알고 여러분은 자중하는 마음으로 내일을 준비해야 됩니다. 국가를 사랑해야 되겠고 세계를 사랑해야 되겠기 때문에 환경을 개척해야 됩니다.(36-201, 70.11.29, p. 1279)

신앙자는 보다 큰 것을 위하여 공적인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횡적으로 어떻게 전개시킬 것이냐? 그것을 공상하는 것으로 그칠 것이 아니라 행동의 결실로 나타내기 위해 창조적인 모험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신앙자는 현실의 환경과 부단히 투쟁해서 이상을 현실화시키기 위한 모험의 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최고 개척자의 생활이요, 최고 투쟁자의 생활이요, 최고 전도자의 생활입니다. 그런 결과로 나타나야 최고의 승리자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러한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28-271, 70.2.8, p. 819)

## 28 일차 훈독말씀

하나님의 심정으로 눈물을 흘릴 수 있는 공명권에 들어가게 되면, 영계가 총동원하게 된다.(96-282)

어떤 사람은 신앙생활은 나이가 많이 들어서 하겠다, 죽을 때가 다 되어서 믿고 천국 가겠다고 합니다. 그러나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천국 갈 수 없습니다. 언제 하나님을 중심삼고 출발하겠느냐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죽을 때가 다 되어서 출발했다면 전 생애의 대부분은 하나님을 배반하는 자리에 있었다는 것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비례하여 그 이상의 회개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이 들어서 믿고 천국 가겠다고 말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32-32, 70.6.14, p. 820)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뜻을 안 그날부터 지금까지의 생활이 어떤 사람은 1년이 되었고, 어떤 사람은 10년이 되었고, 혹은 반평생을 뜻과 더불어 살아온 사람도 있을 텐데, 그동안의 생활이 정지된 입장이었는가 아니면 전진한 입장이었는가, 그렇지 않으면 후퇴한 입장이었는가 하는 것이 문제 됩니다. 여러분은 이 가운데 어디에 속하는지를 반드시 명시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아무리 과거에 전진했다고 하더라도 오늘 정지해 있으면 거기에 하나님의 생명력이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인연이 있을 수 없습니다. 과거에는 전진하면서 무한한 가치와 무한한 생명력과 무한한 사랑의 힘을 지니고 살았다고 해도 현재 정지된 자리에 있다면 하나님과 이별한 것입니다. (32-19,

70.6.14, p. 821)

타락한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권과 사랑권 내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회개가 필요합니다. 선조로부터 지금까지 백이라는 양의 죄를 지었으면 그 이상의 노력을 하고 회개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에서 회개는 빼놓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천대만대의 선조들을 통해서 태어났습니다. 그 선조들이 선한 선조들이면 나는 자동적으로 하나님의 생명권 내에 접할 수 있는 가까운 거리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악한 선조들이라면 하나님의 생명권과 먼 거리에 있습니다. 먼 거리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생명권과 인연을 맺으려면 선조들이 악하였던 모든 양을 넘어설 수 있는 회개의 기간이 절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채우지 않고는 자기 이상의 생명력의 세계에 접촉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길에는 반드시 회개의 눈물이 필요한 것입니다.

(32-24, 70.6.14, p. 821)

## 29 일차 훈독말씀

세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참다운 인간이 필요하다. 참다운 인간으로서 필요한 것은 심정이다.(18-263)

아버님! 저희들은 인류를 창조하시던 아버지의 본연의 심정을 알지 못하고 있사옵고, 저희들의 슬픔을 몰아낼 수 있는 아버지의 사랑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사옵습니다. 이제 저희들의 모든 것을 희생시켜서라도 아버지의 사랑을 찾아야 되겠사옵고, 아버지와 저희와의 본연의 인연을 회복해야 되겠사옵습니다.

아버님! 저희들 이제 마음문을 열고 열어 당신의 심정이 무엇이고 당신의 사랑이 무엇인가 스스로 찾을 수 있게 허락해 주시옵고, 또 귀를 열어서 아버지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고, 하늘이 허락하시는 은사를 받을 수 있는 아들딸을 찾고 계시는 아버지의 모습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뜨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으며, 저희들을 위하여 수고하신 아버지의 손길을 알게 허락하여 주시옵고, 참으심의 그 심정을 체휼할 수 있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수고하며 참아 나오신 아버지의 심정을 저희도 조금은 알고 있사오니, 저희들의 마음 몸을 온전히 아버지의 것으로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무지하여 사망권 내에 사로잡힌 아들딸들이 있사올진대는, 아버지, 친히 은혜의 손길을 다시 펴시어서 전체의 창조의 역사를 일으키시옵고, 본연의 호소의 심정을 대할 수 있고, 아버지의 마음 앞에 화동할 수 있는 이 시간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길, 아버지,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마음을 다하여 섭리하신 아버지의 뜻이 있다는 것을 알았사옵고, 천정의 노정을 밟아 나오신 역사노정이 있다는 것을 알았사옵습니다. 이것은 오직 하늘과 통할 수 있고 하늘을 대할 수 있는 가치관을 찾아 나온 사람들을 통하여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고 있사옵습니다. 역사적인 모든 죄악과 시대적인 모든 죄악과 미래적인 모든 죄악의 원천을 근절시켜야 할 사명이 저희들에게 있다 할진대는, 죄악에 끌려 가책받지 않고 아버지의 사랑 속에서 감사드리고 싶은 마음의 충동이 일어날 수 있는 아버지의 직접적인 사랑의 역사가 나타나게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아버님,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니다.

천륜의 진리를 통하지 않으면 안 될 때가 되었고, 천륜의 인격을 통하지 않으면 안 될 때가 되었으며, 아버지의 사랑을 통하지 않으면 안 될 때가 되었다는 것을 알았사옵습니다.

아버님! 모든 인류에게 아버님의 사랑을 소개할 수 있는 말씀이 나타나게 허락하여 주시옵고, 아버님의 사랑을 증거할 수 있는 인격자가 오늘 이 끝날의 못 백성 앞에 나타나게 허락하여 주시옵길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니다. 그 진리를 따를 수 있는 저희들의 마음 준비와 터전을 갖추게 허락하여 주시옵고, 아버지의 뜻 앞에서 모든 것이 밝혀질 수 있는 그 날이 역사 앞에 어서 속히 나타나게 역사(役事)하여 주시옵길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오면서, 모든 말씀 주의 이름으로 아뢰었사옵나이다. 아주. (1958. 2. 16)

## 30 일차 혼독말씀

모든 것의 주체로 설 수 있는 가치의 중심, 생명의 중심, 이념의 중심과 사랑의 중심은 참부모의 사랑과 심정밖에 없다.(4-310)

잃어버린 참다운 자녀를 찾기 위해 복귀의 서글픈 노정을 헤쳐 나오시는 아버지의 심정과, 아버지의 사정과, 아버지의 형상을 마음으로 몸으로 더듬어 체휼할 수 있는 아들딸들이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심정에 사무친 사랑의 마음으로 아담 해와를 사랑하지 못하시고, 6천 년 기나긴 세월을 사랑에 굶주려 나오신 아버지의 심정을 체휼할 수 있는 아버님의 아들딸이 되게 해주시고, 서글픈 아버지의 심정을 불안고 위로해 드릴 수 있는 간곡한 자녀들이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이 마음과 몸을 아버지의 것으로 바쳐 드릴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몸과 마음을 저희의 것으로 생각하지 않고 영원하신 아버지의 것으로 자랑할 수 있는 승리의 제물이 되게 인도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그리하여 6천 년 동안 참다운 사랑의 심정으로 불안고 사랑하지 못하였던 심정을 해원해 드릴 수 있는 당신의 혈족들이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아버님,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땅 위에 수많은 사람이 살고 있지만, 아버지께서 내 아들딸이라고 사랑하고 사탄 앞에 내 아들딸이라고 변명하며 불안고 사랑할 수 없는 아들딸이 없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2천 년 전 예수님께서 이 땅의 만민을 구하기 위한 싸움의 노정을 걸을 때에도 아버지께서 친히 붙들고

사랑하지 못하셨다는 것을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사랑하는 자녀는 어느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나이다. 아버님의 심정에 사무친 예수님이었지만 당신의 사랑을 받지 못했다는 것을 저희들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지 못한 아버지의 사정도 저희들이 알고 있사오니, 영광의 한날을 세우시고 하늘의 아들딸을 세우시어서 사무친 심정을 푸시옵고, 불안고 사랑하며 모든 심정을 토로하시옵소서. 그런 하늘의 아들딸이 이 땅에 나타나는 것이 아버지의 소원인 것을 저희들이 알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희들은 가진 것 없고 모든 것을 잃어버렸다 할지라도, 아버지의 사랑의 품에 품기어 영원한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아들딸이 되기를 원하옵나이다.

사랑하는 아버지! 저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권능의 손길을 펴 주시어서 저희를 성별시켜 주시옵소서. 악의 요소를 제하여 온전히 아버님의 것이 될 수 있는 저희의 몸과 마음이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모든 말씀 주의 이름으로 아뢰었사옵나이다. 아멘.

(1958. 12. 14)

## 31 일차 혼독말씀

통일교회에서 말하는 심정이란 인류가 바라는 소망의 심정이요, 만민이 인연맺지 않으면 안 될 심정이요, 지금까지 하나님이 찾아 나오셨던 심정이다.(14-177)

한 많은 역사시대에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모르는 가운데에서, 이 불초한 자식이 당신을 발견하고 당신을 알고 난 그날부터는 제 눈에서 눈물이 그칠 수 없는 날들이 계속되었습니다. 그렇게 된 것을 감사하면서 달리다 보니 70이 가까워 오는 노구시대가 제 목전에 다가왔습니다. 그렇게 혈기왕성한 청춘시절에, 모든 정열을 다 불태워 하늘을 모시고 하늘 앞에 영광을 돌려야 할 그때를 다 잃어버리고, 민족의 배도자로 인류의 배역자로 몰림을 당해 나온 그날부터 통일교회가 말없이 맞고 빼앗아 오는 전법을 통하여 지금까지 참아 나오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것을 몰랐던 저도 누구에게 지지 않는 성격을 가진 사나이로서 휘둘러 버리고 처단해 버릴 수 있었던 역사시대를 다시 회상하면서, 분함과 원통한 사연 가운데서 참아 오시는 넓고 크신 당신을 알았습니다. 그런 당신의 모습과 그 인연을 따라오다 보니 오늘 이 자리까지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불쌍한 하늘을 생각할 적마다 목이 메고 기가 막히는 사연이 얼마나 많은가를 알았기 때문에, 오늘날 어려운 고비고비 길을 넘게 되었음을 감사드립니다.

아버님! 당신은 사랑이었습니다. 철창문으로 몰아내는 당신은 저에게 환희에 찬 환경의 수준을 준비하고, 복을 주기 위한 상속적인 자리를 주시기 위함임을 생각하게 될 때, 지나고 보니 모든 것이 사랑이었고 당신의 넓으신 후덕의 손길이었습니다. 그것을 생각할 때 감사하옵니다. 모든 말씀 참부모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엿사옵니다. 아주. (1987. 4. 17)

심정에 사무쳐서 남들을 위해 주기 위하여 애쓰는 무리들이 사는 세계가 뜻의 세계이다.(5-329)



## 32 일차 훈독말씀

사랑하는 아버님! 그리운 아버님! 언제나 함께하는 아버님! 아버님께서 천상에 입성하신 지도 7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이 천주에 당신께서 흘리신 땀과 눈물이 베어있지 않은 곳이 없습니다. 오늘 유독 그립습니다.

복귀섭리의 사명을 다 이루시고 본향원에 잠드신 참아버님

아버님께서는 성화하기 1년 전 90세를 훌쩍 넘긴 연세에도 여덟 차례 넘게 미국을 왕래하셨습니다. 자신의 건강을 전혀 돌보지 않으시고, 오직 세계와 인류를 위해 일하셨습니다. “이 일을 끝내고 한가해지면 그 때 우리 조금 쉽시다.”라고 하시던 말씀은 끝내 지상에서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밤낮을 쉬지 않고 일하신 당신, 그래서 저도 그런 아버님을 모시고 생활하며 일평생 3시간 이상을 자본 적이 없었습니다.

2012년 뜨거운 여름, 마지막 병원에 입원하실 때도 아버님께서는 “아직 할 일이 많은데 병원에서 시간만 보내면 어떡하나!” 하시며 오히려 입원을 권유한 사람들을 나무라셨지요. 아직 할 일이 많이 남으셨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서둘러 집으로 돌아오셨지요. 그리고 아버님께서는 “오늘은 엄마하고 겸상을 하고 싶다.”라고 하셨습니다. 그 말을 들은 우리 식구들은 참으로 의아했습니다. 항상 제가 옆에 앉아 함께 식사를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날 점심상을 앞에 두고 아버님께서는 손가락을 들 생각은 하지도 않고 제 얼굴만 뵈히 바라보셨습니다. 아마도 아버님께서는 마음속에 제 얼굴을 새기시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미소를 지으며 아버님 손에 손가락을 쥐여드리고 반찬을 올려드렸습니다. 그리고 저는 드시는 모습을 하염없이 바라보았습니다. 저도 아버님의 얼굴을 가슴에 새겼습니다.

그리고 유독 태양빛이 강한 다음 날, 아버님께서는 한 키가 넘는 커다란 산소통을 대동하고 따가운 햇빛을 받으며 청평호수와 청심국제중고등학교를 시작으로 청평단지를 두루 둘러보셨습니다. 그리고 천정궁으로 돌아와 “하늘이여 축복하소서. 끝을 맺게 허락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라는 기도 후, 녹음기를 가져오라

하시고 “복귀섭리의 사명을 다 이루었다.”라는 마지막 기도를 저와 함께 올리셨습니다.

그리고 “엄마, 고마워요! 엄마, 잘 부탁해!”, 아버지께서는 힘겨워하면서도 “너무 미안하고 정말 고맙다.”고 연이어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아버님의 손을 더욱 굳게 잡으며 다정한 말과 눈빛으로 안심시켜 드렸습니다. “아무 걱정하지 마세요.” 아버지께서는 그렇게 하늘부모님 품에 안기셨습니다. 그리고 천성산 기슭 본향원에 잠드셨습니다.

### 참아버님을 위한 참어머님의 선물

아버님 성화 후 새벽이면 저는 본향원에 올랐습니다. 가을이 되면 폭풍이 몰아치고, 겨울이 되면 함박눈이 쏟아져 쉬어야 할 이유와 핑계는 참으로 많았지만 어김없이 새벽이면 본향원에 올랐습니다. 성화 후 40일 동안 아침저녁으로 소식을 올렸고, 아버님이 그리울 때면 수없이 본향원을 오르내리며 아버님과 수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아버님의 생각이 제 생각이 되었고, 제 생각이 아버님의 생각이 되었습니다.

햇볕이 따스한 날, 바람이 부는 날, 갑자스레 천둥번개가 치고 장대비가 쏟아지는 날, 함박눈이 하늘을 새까맣게 덮는 날... 그럼에도 저는 아버지 성화 후 1천95일 동안 한 번도 시묘를 거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1970년대 아버지께서 걸으셨던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뉴욕까지 5천600킬로미터를 횡단했고, 아버님과 함께 올랐던 알프스 산맥의 12개 봉우리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당신과 약속했던 “초창기 교회로 돌아가 신령과 진리를 교회를 부흥시키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리고 성화 3주년, 저는 이제 아버지께서는 그동안 외로우셨던 하늘부모님을 본향원에서 위로해 드리고 송영의 대상으로 자유로워지시기를 간구했습니다. 그리고 아버님을 위해, 그리고 하늘부모님을 위해 2020년까지 7개국 국가복귀를 승리할 것을 결의했습니다.

동에서 서로, 남에서 북으로, 저는 미친 듯이 세상을 품으려 다녔습니다. 입 안이 헐고, 다리가 붓고, 서 있을 수조차 없는 어려움이 있었지만, 저는 쉴 수가 없었습니다. 아버님과의 약속, 아무리 뜻이 힘들어도 내 대에서 끝을 보겠다는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였습니다. “기필코 제가 이뤄 드리겠다. 그것을 위해서 저는 변하지 않을 것이다.”라며 수없이 다짐하며 살아왔습니다. 당신이 사무치게 그리울 때면 달을 벗삼아 대화하며 아버님의 성체를 앞에 두고 제가 했던 약속 “생이 다하는 날까지 천일국을 이 땅에 정착시키겠다.”는 그 결의를 되뇌이며 살아왔습니다. 그렇게 살다보니, 벌써 성화 7주년이 되었습니다.

아버님 아시지요. 아버지 성화 이후에는 참으로 형언할 수 없어, “나만 남았나이다.” 하는 입장이었습니다. 마치 황막한 사막에 모래 태풍이 불어오는데 눈을 뜰 수 없는 환경에서 작은 바늘 하나를 찾아야만 하는 심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찾았습니다. 찾아야만 했습니다.

“2020년까지 7개국을 반드시 복귀하겠다.”는 저의 결의는, “모든 축복가정을 신종족메시아로서 천보원에 입적하게 하겠다.”는 저의 결의는 아버님을 위한 제 선물입니다. 이 선물이, 하늘부모님에 대한 당신의 효정의 삶이 온누리에 희망의 빛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 33 일차 훈독말씀

뜻을 세우는 일은 나무를 심는 것과 같습니다. 집 뜰에 대추나무를 심으면 집 안에 대추가 열리고, 뒷동산에 사과나무를 심으면 뒷동산에 사과가 열립니다. 무슨 뜻을 어떤 곳에 심을 건지 생각해보십시오. 여러분이 어떤 뜻을 세우고 어디에 심느냐에 따라 서울의 대추나무도 아프리카의 사과나무도 될 수 있습니다. 물론 남태평양의 야자나무도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심은 과일나무처럼 미래에 여러분의 뜻이 열매를 맺을 겁니다. 부디 그 열매가 어디에 맺히면 좋을지를 생각하면서 뜻을 세우십시오.

뜻을 세울 때는 마음을 넓게 갖고 반드시 전 세계를 다 돌아보십시오. 가난과 질병이 떠나지 않는 고통의 아프리카도 보고, 종교문제로 총부리를 겨누고 살아가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도 보고, 마약의 원료인 양귀비를 재배하여 근근이 먹고사는 아프가니스탄도 보십시오. 극도의 탐욕과 이기심으로 세계 경제를 구렁텅이로 빠뜨린 미국도 보고, 지진과 해일이 끊이지 않는 인도네시아도 보십시오. 그리고 그 나라들 사이에 자기 자신을 세워보십시오. 어쩌면 새로운 종교분쟁이 일어나는 인도가 적합할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가뭄과 기아로 허덕이는 르완다일 수도 있습니다.

뜻을 세우는 데 있어서 우리나라의 좁은 국토를 탓하는 어리석은 일을 범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는 일에 따라서 우리나라는 얼마든지 넓어질 수 있고 어쩌면 아예 국경이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아프리카에서 활약하면 아프리카는 우리나라가 됩니다. 그러니 세계를 무대로 놓고 할 일을 찾아보십시오. 아마도 지금까지 여러분이 꿈꿔온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일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번뿐인 인생을 세계가 필요로 하는 일에 던지십시오. 모험을 하지 않고는 보물섬에 갈 수 없습니다. 부디 우리나라를 넘어서 세계를 무대로 뜻을 세우기 바랍니다.

1981년대에 나는 우리나라 대학생들을 일본과 미국으로 내보냈습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최루탄이 터지는 조국을 떠나 더 넓은 세상, 다양한 세계를 보여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물 안 개구리는 우물 밖에 더 넓은 세상이 있는 줄을 모릅니다.

나는 글로벌이라는 말도 모를 때 글로벌을 꿈꾼 사람입니다. 일본유학을 떠난 것도 더 넓은 세상을 보기 위해서였습니다. 광복 후 하이라얼에 있는 만주전업에 취직해서 몽골어와 중국어, 러시아어를 배우려한 것도 세계인으로 살기 위해서였습니다. 나는 지금도 비행기를 타고 세계 곳곳을 돌아다닙니다. 하루에 한 나라씩 바쁘게 다녀도 전 세계를 다 돌아보려면 반 년이 넘게 걸립니다.

세계 어느 곳이나 사람들이 살고 있지만, 상황은 천차만별입니다. 밥을 지을 물이 없는 곳도 있고 물이 너무 많은 곳도 있습니다. 전기가 들어오지 않는 곳도 있고 만들어낸 전기를 미처 쓰지 못하는 나라도 있습니다. 무엇이든 한쪽은 넘치고 한쪽은 모자라는 일이 세상에는 흔합니다. 문제는 넘치고 모자라는 것들을 공평하게 나눠주는 역할을 할 사람이 적다는 겁니다.

나는 우리나라에서 진정한 의미의 글로벌 리더가 나오기를 소망합니다. 유엔을 이끌어가는 정치 리더가 나오기를 바라며 분쟁 지역의 소요사태를 막아주는 외교 리더가 나오기를 바랍니다. 길거리를 배회하다 죽어가는 가난한 자들을 돌보는 마더 테레사와 같은 구원의 리더가 나오기를 바랍니다. 또한 나처럼 사람들이 돌보지 않는 땅과 바다를 개척하여 새로운 세계를 넓혀가는 평화의 리더가 나오길 바랍니다. 꿈을 꾸고 뜻을 세우는 게 그 시작입니다. 부디 모험심과 개척정신을 갖고 남들이 꾸지 못한 꿈을 꾸고 의미있는 뜻을 세워 인류를 위한 글로벌 리더가 될 것을 간절히 바랍니다.

<평화를 사랑하는 세계인으로>

## 34 일차 훈독말씀

"문 총재께서 애용하시던 선교용 헬기를 판다고요?" "역사적으로 귀한 것이니만큼 박물관에 전시해서 보존해야 하지 않을까요?"

문 총재 성화 후 내가 가장 먼저 시행한 것은 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원모평애장학원 설립이었습니다. 전도를 하고 전통을 유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후대를 양육할 수 있도록 탄탄한 기반을 준비하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문 총재가 사용하던 헬기를 처분해 종잣돈으로 넣고 여러 사업의 수익금을 합쳐 매년 100억 원 이상의 돈을 장학금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한국은 물론 일본, 동남아시아, 아프리카 등 전 세계 우수한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해 공부할 수 있도록 지원했습니다. 주위에서는 문 총재가 국내에서 기동력을 발휘하기 위해 사용하던 헬기를 처분하는 것에 대해 많은 아쉬움을 표했지만, 나는 미래인재 양성을 위해 결심을 해야 했습니다.

나는 그동안 땅끝까지 말씀을 전파하고 많은 사람들이 축복식에 참여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그러나 이에 못지않게 큰 비중을 둔 것이 미래인재 양성입니다. 어린아이들이 팽이를 돌리는데 처음 시작할 때가 어렵지 한 번 돌게 만들면 계속 채찍을 가하지 않아도 돌게 되어 있습니다. 장학재단도 마찬가지여서, 처음 시작할 때가 힘들 뿐 일단 설립한 후에는 어렵지 않게 운영해 나가면서 후진 양성을 위해 큰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교육에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특히 청소년 교육은 더욱 그렇습니다. 그들이 아름답고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울타리를 설치해 바람막이를 해주면서 24시간 돌봐야 합니다. 한 생명체가 탄생하기까지 어머니의 배 속에서 열 달이라는 기간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긴 시간을 준비해서 탄생했지만, 그 아기가 하루아침에 걸을 수는 없습니다. 성장기간이 또 필요한 것입니다.

문 총재와 나는 1994년 7월, 163개국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미국 워싱턴DC에서 세계평화청년학생연합을 창설했습니다. 한국에서는 1995년 사회단체로 등록되었습니다. YSP는 좌우익의 이념을 초월해 화해와 위하는 삶인 참사랑을 실천하는 공동체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중국 베이징에서 남북한 대학생들이 참석한 가운데 평화 세미나를 개최하는 등 남북한 청년 교류에도 크게 기여했습니다. 세계 각국에 지부를 두고 청소년 순결 캠페인을 비롯한 에이즈 예방 교육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했습니다.

2017년 2월, 경기도 가평에 있는 효정국제문화재단 대강당에서 총회 및 출정식이 있었습니다. 나는 참석자들에게 "천일국 건설을 위해 특공대가 되라"고 주문했습니다. 같은 해 6월 태국 방콕에서 열린 YSP 아시아·태평양권 창설대회에는 1만 2천 명의 청년이 참석했는데, "효정의 심정문화 주역이 되어 세상을 비추는 등불이 되자"고 요청했습니다.

2019년 9월, 아프리카 상투메프린시페에서는 아프리카서밋과 축복행사가 있었습니다. 다음 날에는 청년학생 4만 명이 모여 '청년학생축제'가 열렸습니다. 아름다운 바다가 펼쳐진 드넓은 광장 전체가 청년학생들로 인산인해를 이뤘습니다. 효정문화원을 통해 YSP청년학생가요제와 다양한 효정문화 공연, 가수들의 특별공연이 펼쳐졌습니다. 상투메프린시페의 가장 큰 청년학생축제로, 모든 청년학생이 참석한 국가 단위 축제였습니다. 영부인을 비롯해 각부 장관이 모두 참석해 청년학생축제를 축하했습니다.

나는 그들에게 "상투메의 희망은 여러분입니다. 퓨어워터인 여러분으로 말미암아 상투메에 하늘부모님이 바라시는 지상천국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라면서 희망과 격려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18세기 프랑스혁명이 일어났을 때 루이 16세는 자기 나라 백성을 믿지 못해 스위스에 용병을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스위스 용병이 프랑스 왕궁을 지키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전원이 사망할 때까지 한 사람도 도주하지 않고 끝까지 책임을 완수했습니다. 현재 바티칸을 지키고 있는 사람들도 스위스 용병들입니다.

우리는 지금 참부모를 모신 가운데 하나님의 꿈을 이루고자 천일국의 역사를 펼쳐 가고 있습니다. 천일국 시대에 참부모를 모시는 YSP는 마치 스위스 용병과 같이 어떤 어려움이 닥쳐도 결코 물러서지 않는 불굴의 정신을 지녀야 합니다. 참부모님을 자랑하고 뜻을 전파하는 효자효녀, 천일국 충신의 자리에서 있는 것입니다.

<인류의 눈물을 닦아주는 평화의 어머니 中 YSP는 우리의 미래이자 소망>

## 35 일차 혼독말씀

천일국 안착, 하늘부모님의 꿈이여 인류의 소원이고, 참부모의 소원입니다. 놀랍게도 이때를 위해서 이 한자도 만들어진 거 같아요.

이 안착(安着)을 보게 되면 갓머리 안에 여인이 다소곳이 앉아 있는 거예요. 끝날에는 섭리의 완성은 독생녀, 참어머니에 의해서 완성이 됩니다. (박수) 섭리의 완성을 놓고 이 시대를 참어머니와 하고 있는 너희들이 가장 보배로운, 자랑스러운 존재들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출세했다하는 나이가 되려면 40세를 넘어야 돼. 아버님도 40세에 성혼을 했어. 그만큼 기반이 필요하다는 거야. 공부도 필요하고 경험도 필요하고 기반이 필요한데, 대부분 너희들은 20대라고 보지? 그럼 너희들이 40세가 될 때는 내가 97세야. 어떻게 생각하니? (오래 사셔야 합니다) 너희들이 잘 자라줘서 이 나라의 모든 부서에 책임자가 되는 것은 물론이지만은 세계를 리드해 나가는 책임자가 될 수 있는 자리에 서게 되면 세계 복귀가 빠르지 않을까? 그런데 20년은 내가 힘들 것 같으니까 10년 안에 해볼래? (네) 정말? (네)

지상생활이 중요해, 내가 지상에 있는 동안에 하늘부모님의 꿈, 인류의 소원, 참부모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날을 하늘부모님께서서는 학수고대하셔. 학수고대. 알겠니? (네) 그러니까 내가 너희들 부탁하는 것은 너희들이 나의 희망이야. 그러니 잠은 조금 덜 자더라도 열심히 해서 20

년을 10년으로 단축하게 되면 얼마나 하늘에는 영광이요, 인류 앞에는 축복이며 희망이며, 독생녀 참어머니가 지상에 있는 동안에 함께 하늘부모님의 영광을 노래할 수 있는 그날을 앞당기는 너희들이 되어 줄거지? 정말? (네) 모든 분야에서 최고가 돼야 돼, 그렇게 할 거야? 고맙다. (박수) 그래! 너희들이 최고다. 너희들이 자랑스러워, 사랑해!

참부모님 주관 HJ 스페셜 탐견 & 유스 캠프 특별집회 천일국 7년 천력 12월 28일(양2020.1.22)

천정궁

너희들이 이제 공부도 열심히 해야 돼. 왜냐? 세상의 사람들을 교육하는 자리에 서려면은 너희들이 많이 알아야 돼. 그러나 학생으로서 방학이 있다 할 때는 섭리에 동참하는 일선에서 책임하는 자리에 서서 하늘섭리를 1분 1초라도 앞당기는 너희들이 되기를 바라.

<천일국 8년 천력 5월 7일(양 2020.6.27.), 천정궁>

## 36 일차 훈독말씀

소망은 반드시 믿음을 표방하고 나갑니다. 믿음은 무엇을 요구하느냐? 믿음을 완성한 실체에 있어서, 백을 믿었으면 믿은 백만큼의 실제적인 가치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창조이상과 일치될 수 있는 사람, 즉 원리법도와 일치될 수 있는 사람, 타락하지 않고 완성한 사람을 표방하여 믿고 나가는 것입니다. 이 믿음에서 승리하게 될 때, 그는 소망을 이룰 수 있습니다. 소망과 믿음에서 승리한 실체가 될 때 하나님의 사랑은 자동적으로 나타납니다. (14-249, 65.1.1, p. 840)

절대적인 신앙자를 절대적으로 찾아 나가는 하나님의 공식적 원칙이 있기 때문에 노아를 산꼭대기에 배를 지으라는 자리에 아니 세우려야 아니 세울 수 없었습니다. 노아는 120년 동안 그 책임을 다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120년이라는 연수를 찾아 세운 것입니다. 노아는 일생 동안 그 일을 했습니다. 성경에는 노아의 아들들이 홍수심판 후에 ‘아버지가 미친 아버지인 줄 알았는데, 아버지의 말대로 하나님이 심판해서 우리 가정 여덟 식구만 남았다. 이것을 보니 우리 아버지의 말이 옳다. 우리 아버지는 선지자이고 하나님의 사람이다.’라고 존경해야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홍수심판 후에 노아가 방주에서 내려 벌거벗고 낮잠을 자고 있을 때, 둘째 아들이 ‘아버지가 미쳐서 벌거벗고 잔다.’라고 형제들을 충동질하여 옷을 가지고 뒷걸음질해 가서 덮었습니다. 살살이 부정했다는 것입니다. 결국 반대한 것임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절대적인 신앙을 해야 됩니다. 사탄 앞에 절대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위해서 절대적인 신앙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믿음의 조상으로 축복하시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랑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54-76, 72.3.11, p. 840)

실천과 믿음을 두고 볼 때 언제나 믿는 것이 앞서지 실천이 앞설 수 없습니다. 타락한 인간에게 있어서는 믿음이 강해야만 실천도 강하게 됩니다. 그러나 믿는 기준과 실천의 기준은 언제나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믿음만을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보다 나을 수 있는 실천의 결과를 바라고 믿음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실천을 등한히 하고 믿는 것을 위주로 하고 있으니 하나님이 바라는 것과 엇갈려 있습니다. 그러한 신앙생활을 항상 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입장입니다.

(46-70, 71.7.25, p. 840)



## 37 일차 혼독말씀

하나님이 절대신앙에서부터 시작했으니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절대신앙에서 시작해야 됩니다. 절대신앙은 절대사랑을 중심삼고 해야 됩니다. 주체 되는 것이 사랑입니다. 신앙은 상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사랑을 중심삼고 절대신앙, 절대 욕망을 바라는 것입니다. 사랑의 목적은 대우주를 해산하는 것입니다. 창조해 놓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절대신앙입니다. 대우주를 생산해 내려니까 하나님 자체까지도 자기 실체, 몸 마음 전부를 투입하고, 더 투입하고 영원히 투입해야 됩니다. (403-267, 03.1.24, p. 841)

절대신앙은 위하는 것입니다. 절대 하나님이 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젊을 때 데이트하게 되면 남자나 여자나 서로가 얼마만큼 믿느냐, 얼마만큼 위해 주느냐고 합니다. 위하는 길을 세우기 위해서, 위하는 길을 가면서 하나되어야 합니다. 절대신앙은 창조의 대상물을 세우기 위한 것입니다. 절대신앙 위에 참사랑을 중심삼고 하나되기 때문에 투입해야 됩니다. 누군가 투입해야 수평이 되는데, 누가 투입하느냐? 남자도 자기를 중심삼고 투입하라고 해도 안 되고, 여자도 자기를 중심삼고 투입하라고 해도 안 됩니다. 둘이 서로서로가 투입하면서 더 큰 것을 위해서 바랄 수 있어야 됩니다. 이러한 것이 절대신앙·절대사랑입니다.

(417-242, 03.9.10, p. 841)

왜 절대신앙이 필요합니까? 하나님도 최고의 이상적 기준 자리까지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기준을 중심삼고 사랑의 상대권이 나옵니다. 상대권 자체를, 미물의 동물, 광물세계도 절대신앙을 가지고 지었다는 것입니다. 절대사랑을 중심삼고 투입했다는 것입니다. 절대 투입해서 광물시대·

식물시대·동물시대, 그다음에 안착시대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몸 마음이 싸워서 절대 안 된다는 결론의 자리에 서지 않고는 천국화된 세계라든가 천국이 될 수 없습니다. (426-276, 03.11.27, p. 841)

절대신앙은 무엇입니까? 절대사랑의 질서를 세우기 위한 것입니다. 사랑 때문입니다. 그 사랑을 위해서 절대신앙을 찾아가는 사람은 자기 자체의 개성진리체를 무시하고 투입합니다. 하나님이 인격적 신의 성상 형상을 전부 무시하고 몽땅 투입해야만 상대가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는 ‘나를 비로소 아들을 사랑할 수 있는 부모 사랑의 주인으로 만들어다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아들이 하지, 하나님 자신도 못하고, 어머니 아버지도 못합니다.(461-56, 04.7.20, p. 841)



## 38 일차 혼독말씀

호자 효녀와 대신자를 바라시는 하나님 .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라도 사탄을 굴복시킬 대신자가 필요합니다. 6천년 동안 하나님의 세계를 농락하고 유린한 사탄과 싸워 이겨서 호령할 수 있고, 심판할 수 있는 대신자를 하나님께서는 고대하고 계십니다. 이제 떠나는 수련생 여러분에게 부탁하고 싶은 것은 종과 양자의 입장을 지나 적어도 아들딸의 입장에서 가라는 것입니다. 아들딸이 되어야만 아버지의 영광의 자리에 동참할 수 있습니다.

우리 통일교인은 지금까지 어려운 길을 걸어왔지만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최후까지 남아지는 사람이 아버지의 대신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들딸로서, 그리고 대신자로서 이 나라 삼천만 겨레를 위해서 가라고 목이 아프도록 울부짖고 계십니다. 곳곳마다 아버지의 대신자, 아버지의 사랑받는 아들딸을 보내고 싶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너는 내 대신자요, 아들딸이다. 할 수 있는, 사탄을 물리치고 하늘의 참사랑을 받는 자들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가는 길은 호화찬란한 길이 아니라 하나님 대신 죽어야 할 길입니다. 하늘 아버지를 대신하여 죽음의 길을 가야 할 입장에 있는 여러분이기에 아들딸이지만 죽음의 길을 놓고 싸워 나가야 합니다. 이 세상은 선과 악의 전쟁터입니다. 줄잡아 6천년 동안 사탄이 하나님을 골탕먹여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대신하여 책임지고 싸움의 길을 가야 합니다. 여러분은 종이 아닙니다. 그러니 자기 중심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은 사탄의 도성과 원수의 장막을 쳐부수기 위해 싸워야 합니다.

그러니 단단히 무장해야 합니다. 하늘과 땅을 책임지고 처리할 수 있는 아버지의 아들딸이요, 대신자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이제까지 그러한 아들딸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불쌍한 하나님입니다. 이러한 한스러운 하나님의 사정을 알았을진대 이제부터라도 여러분은 생명을 걸어 놓고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사탄과 싸우는 전투장에 서 있습니다. 굶어야 할 때 굶고, 헐벗어야 할 때 헐벗고, 쫓기고 몰려야 할 때 쫓기고 몰리면서라도 하나님의 아들딸이 되어야 합니다. 아직도 하나님은 태평가를 부르시며 내 아들이, 내 딸아! 할 수 있는 입장에 계시지 못합니다. 그러니 그러한 자리에 계시게 될 때까지 싸워야 합니다. 삼천리 강산 방방곡곡이 하나님의 아들딸로 꽉 차 있으면 하나님께서 마음놓고 명령하실 수 있을 텐데 그렇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아들딸이나 대신자로서 하나님의 명령을 받을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그러한 아들딸이, 하나님의 대신자가 나오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대신자가 되어야 합니다. 아버지의 대신자가 못 되겠으면 아들딸이라도 되고, 아들딸이 못 되겠으면 형제라도 되고, 형제도 못 되겠으면 종이라도 되어야 합니다. 그것도 못 되면 차리리 죽는 편이 낫습니다. 선조들의 잘못으로 이스라엘 민족은 지금까지 유리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수습이 될지 안 될지 모르는 실정에 놓여 있습니다.

우리는 통일교회나 교파를 확장시키자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교회의 간판보다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들딸이 많아야 합니다. 간판이 많아 봐야 무엇에 쓰고 구더기 같은 사람이 많아 봐야 무엇에 쓰겠습니까? 우리는 어서 완충지대 같고 중간 단계 같은 입장을 벗어나야 합니다. 그러는 데는 양심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심정을 가지고서야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딸이 되고 대신자가 되어야 합니다. 나가서 싸우는 도중에 어떠한 어려움이 닥쳐도 쓰러지지 마십시오. 그리고 울 때는 혼자 울지 마십시오. 울어도 하나님의 아들딸로서 아버지! 이 자식이 부족하여 아버지의 심려를 끼쳐 드려 죄송합니다. 아버지의 아들딸이라는 이름이 부끄럽습니다. 하며 울어야 합니다. 결코 비굴하게 울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 혹은 딸로서 눈물을 흘리면 하나님 아버지도 눈물을 흘리실 것을 알고 눈물을 흘려도 값비싼 눈물을 흘려야 합니다. 어떤 고난에도 아버지시여! 염려하지 마소서. 이까짓 것이야 문제없습니다. 하는 기백이 살아 있어야 합니다.

먹을 것이 없어 며칠씩 굶고, 잠자리가 없어 밖에서 자고, 모뎀매 한 번쯤 맞는 것이 문제입니까? 옳지 못한 것은 사정없이 들이쳐야 합니다. 힘으로 안 되면 몸을 던져서라도 그들을 굴복시켜야 합니다. 사탄이 올라가면 하늘은 내려오면서 섭리의 일로를 개척해 나온 것이 지금까지의 6천년 역사입니다. 우리의 이념을 사탄 앞에 내놓고 삼켜라! 했는데 못 삼키고 걸리면 해결됩니다.

## 39 일차 훈독말씀

우리의 진정한 아버지는 하나님이신데, 사탄이 아버지 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예수님께서서는 너희 아버지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려 한다. 라고 책망하셨던 것입니다. 사탄의 피를 받은 분통한 사실을 알았으면 분한 마음이 솟구쳐 내 몸을 칼로 찢러 더러운 거짓 피를 빼 버리고 싶은 의협심이 일어나야 합니다. 그런 생각을 해 보았습니까? 이놈의 고깃덩이! 하며 몸을 치면서 분통해하는 사람이 하늘의 충신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께서도 금식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도인들은 몸을 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원수인 사탄이 하늘땅을 더럽히고 참사람, 참가정, 참민족, 참세계를 망쳐 놓고 나까지 빼앗아 가려 합니다.

이러한 사탄을 책임지는 구주가 있다면 내 모든 것을 그에게 바칠 수 있어야 합니다. 죄의 괴수는 사탄입니다. 이 사탄을 때려잡아야 합니다. 이 제는 사탄에 대한 복수전을 감행해야 합니다. 지금은 유격전을 벌여야 할 때입니다. 통일교인은 멋진 투사가 되어야 합니다. 하늘 아버지의 아들딸이 되고 대신자가 되어야 합니다.

앞서 말한 세 가지 길 가운데 어떠한 길로 갈 것이냐 하는 것은 여러분의 결심 여하에 달렸습니다. 여러분은 능히 자기의 갈 길을 잘 갈 수 있어야 합니다. 아버지시여, 제게로 오시옵소서. 할 수 있는 자녀가 많이 나와야 합니다. 오시고 싶어도 자녀가 없어 못 오시는 아버지이십니다. 이제까지 사탄때문에 못 오셨던 아버지시여! 어서 오시옵소서. 얼마나 고생하셨나이까? 오셔서

영광 받으시옵소서. 할 수 있는 승리의 왕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한 왕자로서 하나님 앞에 경배를 드릴 수 있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오실 길을 닦고 보금자리를 마련하기 위해 아버지여, 저희와 의논하시고 저희를 지휘해 주시옵소서. 하고 여러분은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이 아름다운 삼천리 금수강산을 무한히 찾아오고 싶으셨으나 사탄 때문에 못 오셨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천국을 만들어 놓고 어소 오시옵소서.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고 싶어요? 「예.」 그러면 그렇게 합시다.

여러분, 이것만은 잊지 마십시오. 세 갈래 길이 있다는 것,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중심한 선의 세계를 책임지는 길을 가야 한다는 것을 말입니다. 선생님도 이것을 알았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 놀음을 해 왔습니다. 나는 결코 그냥 죽지 않습니다. 설사 내가 죽는다 해도 곁가지가 뻗고 새순이 돌아나 뜻은 이루어지고야 말 것입니다. 그러니 이 뜻길을 가는 데 있어서 선두에 서기를 조금도 주저하지 맙시다.

## 40 일차 훈독말씀

1957년에 통일교회에 처음으로 120곳에 전도를 내보내게 되었는데, 그때 돈을 갈 수 있는 차비만 가지고 옷도 두 벌만 가져가게 했습니다. 40일 동안 금식도 하는데 가서 미숫가루만 먹고 40일 동안 일하라고 한 것입니다. 그리고 노동하고 얻어먹는 데서부터 시작하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가서 그것을 극복하고 나왔습니다. 인간 최하의 자리에서 시작한 것입니다. 아버님은 3년 동안 생일날 금식을 했습니다. 식탁도 없이 음식을 바닥에 놓고 먹었습니다. 그리고 반찬은 김치, 간장을 비롯해 세 가지만 먹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올라왔습니다. 탕감복귀입니다. 입는 것도 얻어 입었습니다. (125-126, 1983.03.14)

아버님이 1950년대 통일교회를 출발하기 전에 많은 사람에게 훈련시키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금식을 하게 하고 개척전도를 시키면서 모든 분야의 훈련을 시켰습니다. 아버님이 보고파서 찾아왔다가 돌아갈 때 늦으면 데려다주고, 밤을 새워 왔다 갔다 하는 일들이 많았습니다. 그것은 아버님만이 아니고 우리 식구들도 그랬습니다. 그때 한국에는 자동차가 귀해서 전부 걸어 다녔습니다. 달밤, 새벽에 서로서로 눈물 흘리면서 나라를 위하고 하늘을 위하고 미래를 위해 선서하고 떠나던 그런 잊을 수 없는 사연들이 많습니다. 거기에서 애국심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첫사랑에 빠진 그 이상의 고차적인 영적 분위기에서 움직이던 것이 언제나 그립습니다. 그런 인연을 어떻게 유발하느냐 하는 것이 교회를 지도하는 사람들의 책임이고, 자기들의 활동 목표로 세워야 할 일입니다. 그 전통 기반을 어떻게 연결시키느냐 하는 것이 여러분이 노력해야 될 표준입니다. 아버님이 그렇게 이 기반을 일으켜 나온 전통을 존중시키고 전통과 교육과 행동을 생각하면서 자기 후계자들을 길러야 됩니다. 지금 아무리 잘했더라도

미래의 후계자들이 지금보다 못하면 떨어져 내려가는 것입니다. 지금보다도 미래가 더 잘되어야 합니다. 미래를 위해서 지금 투입해야 된다는 것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184-112, 1988.12.20)

통일교인들은 몰리고 쫓기는 제일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눈이 내리는 동삼삭의 밤에 집에서 쫓겨난 가련한 신세의 식구들, 쫓겨나서 갈 곳이 없어 담벼락에 비벼대며 기도하던 그 사람들을 내가 압니다. 이런 한이 가슴에 어려 있지만 하늘의 참고 참는 그 마음을 내가 알았기 때문에 반대하는 가족들을 용서했습니다. 그들이 모르고 지은 죄니까 용서하는 것입니다. 사연이 많습니다. 그 가슴에 하늘땅의 한을 품고 다니는 것을 누가 압니까? 내가 그렇게 나오면서 눈물을 많이 삼켰습니다. (157-138, 1967.04.02.)

초창기에 전도 나갔던 책임자들은 핍박이 심하니 외롭기가 짝이 없었습니다. 서로 소식을 몰로 궁금하게 되면 중고등학생이나 대학생들을 통해 연락을 해서 만납니다. 그런데 그 거리가 대개 50리, 100리입니다. 아무 날 두 사람이 만나자고 해서 중간에서 만나게 됩니다. 50리 길이면 25리씩 걸어와서 만나는 것입니다. 만날 장소나 있습니까? 그러니 네거리나 지서 앞, 다리 밑 등 이름난 곳에서 만납니다. 그렇게 해서 만나면 먹을 것이 있습니까? 그렇게 오랜만에 만났으면 점심을 먹든가 저녁이라도 같이 먹어야 하는 것이 인지상정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할 수 없는 입장에서 헤어집니다. 그중에는 형님 같은 사람도 있고, 누나 같은 사람도 있고, 동생 같은 사람도 있습니다. 거기에서 교차되는 심정의 애달픔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과거에 자기 형제나 부모를 중심삼고 살면서 갖지 못했던 정열의 투입이 벌어집니다. ‘다음에 올 때에는 무엇을 해서라도 점심을 대접해야겠다. 닭을 사다가 대접해야겠구나!’라고 생각하고는 일주일 동안 노동을 해서라도 그것을 마련합니다. 그러면서 노동을 했다는 얘기는 안 합니다. 나중에 노동을 해서 그것을 사 왔다는 사실을 알게 될 때에는 피가 끓는 것입니다. 감격해서 눈물을 흘리게 되면 턱이 먼저 떨립니다. 그런 경지에서 다시 만나면 서로 불안고 기도하고 합성을 지르던 소리가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동네 사람들이 주변에 뺨 둘러서 있는 것도 모르고 기도하던 그때의 그런 일들이 모두 역사적 자료입니다. (215-043, 1991.02.06)